

내 고장 곡성

제 3 호

곡성 문화원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의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を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도안 설명

• 상, 하 白色은 우리 민족의 바탕인 純粹를, 좌, 우 靑面은 푸른 청조와 푸른 동산을 나타내면서 항구적인 平和를 상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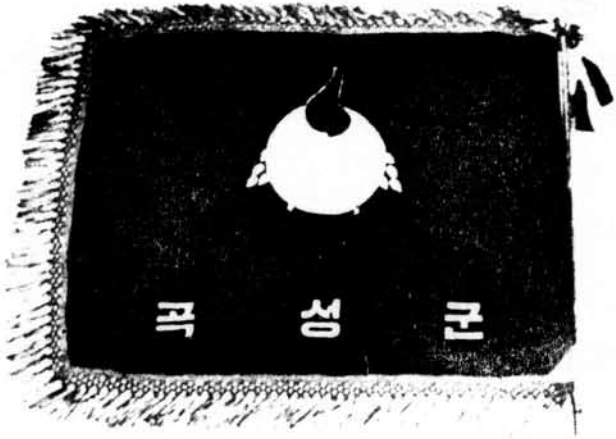
• 중앙의 문화원 마아크는「文」字 5개가 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협동의 의미와 함께 지역 문화 창달의 구심체임을 나타내고 있음.

* 각 문화원기는 연합회 회기 도안과 같으나, 하단 시, 군명만 다르게 고안되어 있음.



〈谷城文化院舍〉

군기해설



1. 봉화는 필승의 신념과 군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단결을 뜻한다.
2. 슈은 단군묘의 상징으로서 군민의 기본정신을 여기에 설정하고.
3. ○은 향토방위와 풍요한 사회를 표시하고
4. 벼알은 11개 읍면이 함께 잘 살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5. △는 동악산의 표시이며 정신개척을 뜻하고
6. 밑의 부분은 「谷」곡성의“고을곡”자를 표시한 것임
7. 색채
 - 붉은빛 — 정열과 광명
 - 주황빛 — 풍요와 평화
 - 은빛 — 영광과 희망
 - 푸른빛 — 젊음과 생동
 - 흰 빛 — 순결과 백의



〈谷城郡廳〉

곡성군민헌장

1969. 4. 25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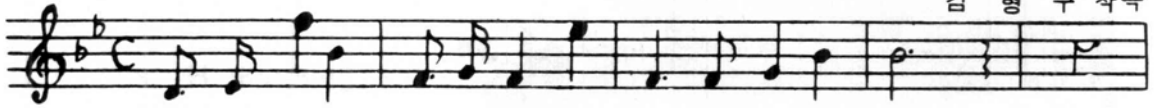
유구히 흐르는 섬진강을 끼고 밝은 내일을 향하여 뻗어가는 곡성군은 조상이 터를 닦은 정다운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는 단군의 큰뜻을 지키고 받아들여온 곡성 군민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내고장의 명예를 더욱 빛내고 살기 좋은 낙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제 헌장을 마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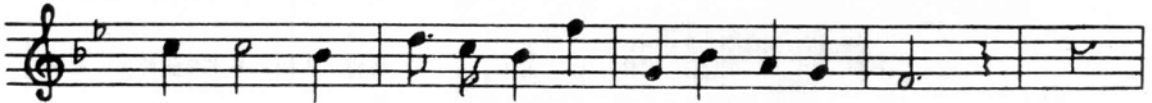
- 내고장 발전과 방위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뭉칩시다.
- 법을 지키고 서로 도와 명랑한 환경을 이룩합시다.
- 맡은 일에 부지런하고 한푼이라도 아껴 모읍시다.
- 항상 어른을 공경하고 의례를 간소하게 치룹시다.
- 어린이들은 사랑으로 선도하여 알뜰히 가꿉시다.

곡 성 군 민 가

허 연 작사
김 형 구 작곡



노 - 령 의 장 한 출 기 이 곳 에 뻗 어
섬 - 진 강 맑 은 물 결 굽 이 굽 이 엔
단 - 군 의 높 으 신 뜻 길 이 받 들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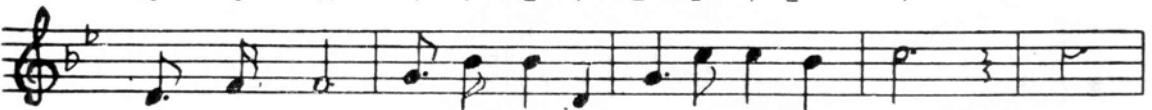
동 악 산 통 명 산 은 맘 도 푸 르 러
어 디 나 황 금 땅 이 반 겨 맞 는 다
겨 례 의 어 진 얼 을 지 켜 온 고 장



대 대 로 이 어 받 은 보 금 자 껌 에
땀 흘 려 일 한 보 람 알 들 히 거 뒤
설 산 성 한 그 루 의 나 무 들 까 지



오 북 한 우 리 살 립 키 우 며 살 - 자
아 끼 고 서 로 도 와 복 되 게 살 - 자
정 성 껏 가 꾸 면 서 즐 겁 게 살 - 자



어 하 라 등 계 등 등 정 다 운 곡 성



새 날 의 고 동 소 리 울 려 퍼 진 - 다 .

郡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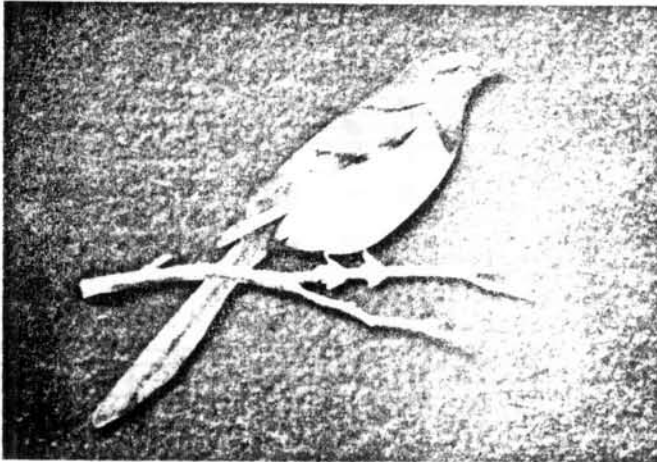


□느티나무 (槐 木)

Zelora Serrata Makino

年輪이 明確, 強質로 뒤틀리지 않음. 紋樣과 光澤이 良好, 不汚不濕으로 建築材, 機械材, 農機具材, 樂器材, 船舶材, 彫刻材, 車輪材, 家具材로서 谷城 郡民의 強建, 志操, 多才多能함을 象徵함.

郡 鳥



□까 치

Pica Picajeponica

構巢에 能하고, 益鳥, 吉鳥인 郡鳥로서, 鶻橋愛情, 鶻聲吉調, 鶻吉音信 등은 谷城 郡民의 사랑 즐거움의 소식등을 象徵하는 것 이라 한다.

郡 花



□개나리

For Sythia Korean

建國樹, 藥用으로 많이 쓰이며 黃純色은 谷城 郡民이 繼然無垢, 繼然愛護, 平和愛護, 情緒醇化를 象徵함.



장기대회 (1등:오곡면 2등:입면 3등:석곡면)



윷놀이 (1등:삼기면 2등:석곡면 3등:겸면)



순례유적지 독립기념관



제기차기 (군민의날 행사)



청소년 위안공연



유치원생 인형극 공연



청소년 글짓기 대회 (참여인원 800명)



청소년 미술대회 (참가인원 500명)



청소년 서예경연대회 (참가인원 250명)



서예전시회 (군민회관 소강당 7일간)



(유암 초영민서생 초청지도)
여중생 서예교실 수업



호자 호부표창

- | | | | |
|---------------|---------------|---------------|--------------|
| 조장순 (오곡면 오지리) | 김철주 (삼기면 금반리) | 윤인순 (입면 금산리) | 김한옥 (경면 윤교리) |
| 박길례 (석곡면 연반리) | 유근식 (죽곡면 태평리) | 김병남 (오산면 가곡리) | |
| 전일례 (고달면 목동리) | 최명수 (옥과면 율사리)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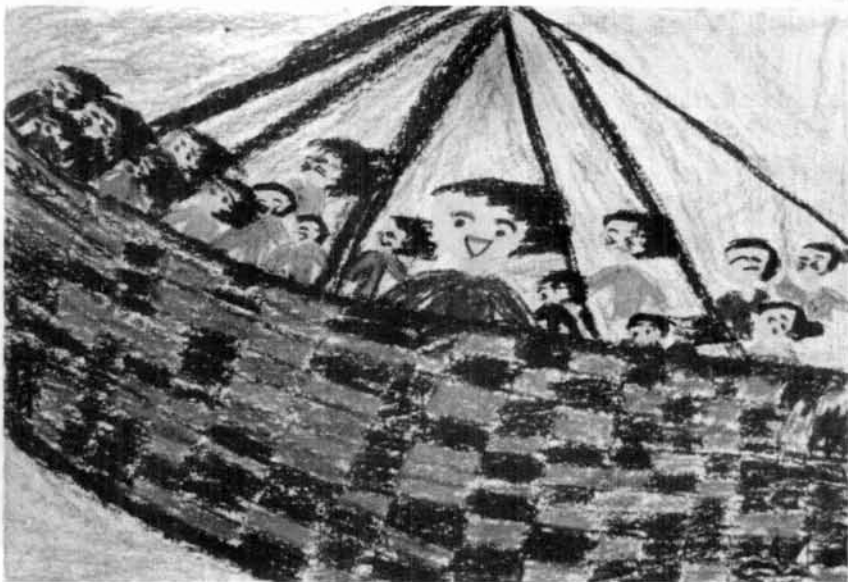
▣ 미술 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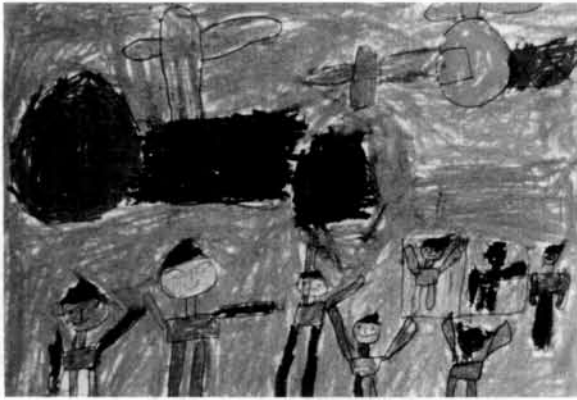
대상 (차유진 : 석고초등 5년)



대상 (정하늘 : 고달초등 병설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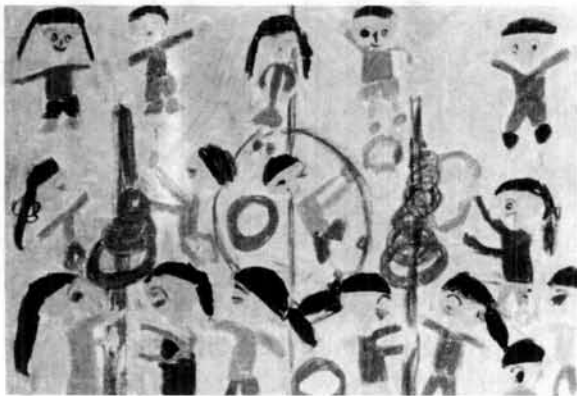
대상 (이푸른 : 목사초등 3년)



우수상 (임현수 : 고달초등 병설유치원)



우수상 (임주열 : 고달초등 병설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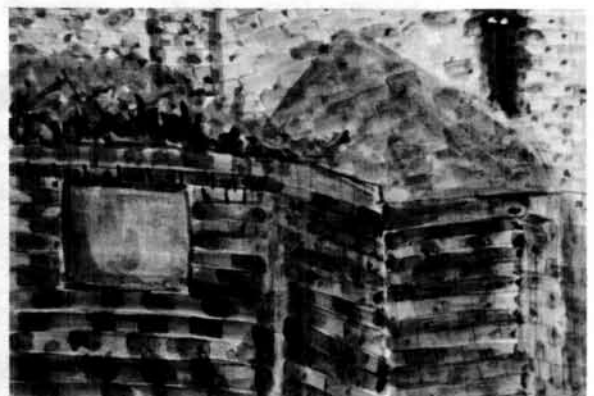
우수상 (최한영 : 죽곡초등 2년)



우수상 (최유청 : 곡성서초등 2년)



우수상 (강나루 : 옥과초등 4년)



우수상 (이진 : 죽곡초등 5년)

☐ 서예 경연대회

나뭇이 몇이 나하니 수척과 응죽이 다
 동산에 날오르니 귀더옥 반갑고 야득
 외라이다 첫벽에 드러하여 무엇하리
 谷城中央學校 六年黃正仁 이희년 서예회

대상 (한글)

得好友來如對月有
 奇書讀勝看花
 谷城中央學校
 六年黃正仁

대상 (고학년 한문)

아름다운
 동악산골
 谷城中央學校 六年黃正仁

대상 (고학년 한글)

通明宿雨雪山落照
 谷城高一年 吳熙洙

대상 (한문)

通明宿雨雪山落照
 三岐中學校 二學年 洪美蘭

대상 (한문)

참어머니
 徐教男 谷城西校

대상 (저학년 한글)

蓮出綠波君子德蘭
 生幽谷王者香
 谷城西校 徐教男

우수상 (고학년 한문)

通明宿雨雪山落照
 谷城高一年 姜思英

우수상 (한문)

通明宿雨雪山落照
 谷城中二年 趙翼杓

우수상 (한문)

아름다운
등악산골

우수상 (고학년) 이화여자대학교

우수상 (고학년 한글)

道心靜似山藏玉書
味清如水養魚

谷城中央校
六年崔字豪

우수상 (고학년 한문)

아름다운
등악산골

우수상 (고학년) 이화여자대학교

우수상 (고학년 한글)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
동산의 달오르니 괴더욱 반갑고 야
어라이다 첫박외 또 더하여 부엌하리

우수상 (저학년) 이화여자대학교

우수상 (한글)

通明宿雨雪山落照

三岐中學校 二學年 孔智愛

우수상 (한문)

어머니
참사랑

죽곡교사학년 송금란

우수상 (저학년 한글)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
동산의 달오르니 괴더욱 반갑고 야
어라이다 첫박외 또 더하여 부엌하리

우수상 (저학년) 이화여자대학교

우수상 (한글)

어머니
참사랑

죽곡교사학년 신송영

우수상 (저학년 한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고향 소식지 되길 ...

金 吉 榮

(谷城文化院長)

누가 말했던가 유수와 같은 세월이라고 내 나이 50대 고향의 문화 창달을 위한 답시고 문화원에 뜻을 두고 첫발을 내민지 벌써 15여 성상을 겪어 왔다.

당시만 하여도 흑발이 왕성하고 혈기 또한 중천하여 장년의 희망은 크기만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랴 해야할 일들은 산적한데 붙잡을 길없는 시절은 어언 간 지나고 처량한 인생의 종말을 예고하듯 서글프게 어느덧 백발로 변하였으니 인생의 허무함을 무엇으로 달래리오.

生也一片浮雲起요

死也一片浮雲滅이라(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한조각 구름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어떤 불가의 말을 되뇌어 본다.

어느덧 10년의 무정 연월(煙月)이 두번가까이 바뀌었으니 강산도 그만큼 달라졌다고나 할까. 풍진 세상 따라 우여곡절 희비쌍곡선을 그 얼마나 겪어 왔던가. 이러한 시공속에서 좌충우돌 향토의 짙은 빛깔을 골라 조상이 물려주신 문물이 이것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는 곡성군지와 향토지, 전강 대종사스님 생애집, 세시풍속, 월파집, 청계동사, 누정집 등 수종이 있으나 郷土人의 다정다감한 것으로는 내고장 곡성지라 자부해 본다.

이제 여기 내고장 곡성 제3집을 펼쳐 놓았습니다. 향리에 계신 분들이나 출향하신 향토인 여러분의 협조로서 이루어지는 이 책자가 고향에서는 여러분들의 애독물이 되어 주고 향리를 떠나 타관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애향인 여러분의 고향 소식지로 항상 여러분 곁에 같이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일 뿐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바라며 건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내고장 곡성』誌 발간을 축하 하면서

강 동 식

(시인·수서전화국기술부장)

지역사회의 문화라는 것이 곳이 광주문화권이나 서울문화권의 전수나 중계역할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를 배경으로 수천년동안 그지역 사회의 문화적 기층을 마련해온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고유의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맑고 향기로운 향토문화를 꽃피워내는 것이야 말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 민족이 자존과 독립의 기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외국에 예속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향토문화 역시 독창적인 지역문화 특유의 개성을 살려나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곡성군만이 스스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향토인으로써의 바른 자세를 갖추 수 있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대도시의 거대한 연출무대나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대형예술작품이나 중앙무대에서의 대작 위주의 문예 활동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비록 지방문화의 단출한 공간에서나마 지방특유의 고유문화를 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창작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곡성은 곡성 특유의 자연환경이나 지리적 여건과 동시에 사회적인 문화적 바탕을 배경으로 해서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워 주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소망을 피력해 봅니다.

문화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다가 보면 많은 서민들이 참여하는데 부

답을 느끼게 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여기서 저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우리들 서민들이 서로간에 오순도순 살아가는 생활공간 속에서 진실되고 아름다움을 창출해 내게되면 그것이 곧 문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이 매일같이 오고가는 학교와 마을간을 연결해 주는 들판길에서 느끼게되는 여러 형태의 마을간을 연결해 주는 들판길에서 느끼게되는 여러 형태의 자연에 대한 감상과 호기심은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서 꽃피워내게되면 그것이 곧 詩가 되기도 하고 소설의 줄거리가 되기도 하려니와 자연과 인간사이에서 어울러지는 무위자연의 도 라던지 견성이나 무아의 높은 경지로까지 도달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생활환경 주변에는 많은 문화적 소재가 널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소재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해서 당장 이해관계의 시각에서만 들여다보면 많은것을 잃게 될것입니다.

차분하고 맑고 아름다운 심성을 갖추어서 그것 하나 하나에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면 한없는 자연의 신비와 생명의 외경심을 갖게되고 그런 심전(心田)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하고 정진하면 좋은 문화를 꽃피워낼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과거에 몇몇 지방자치 지역의 유지들과 교유한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기억에 남는것은 항상 자기들 고장의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 문화유산을 잘 가꾸어 가기 위해서 지방유지들이 혼연일체가 되여서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볼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매우 부럽게 생각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아무튼 「내고장 곡성」이란 향토문예지를 잘 가꾸어서 훌륭한 향토문화 창달의 본산이 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분발과 참여를 바랍니다.

- ◎ 發刊辭 · 항상 여러분곁에 있는 고향소식지 되길 谷城文化院長 金吉榮 · 17
- ◎ 祝刊辭 · 「내 고향 곡성」誌 발간을 축하하면서 詩人 姜동식 · 18

■ 마을현황 · 三岐面 22

- 提 言 · 하루에 한번쯤은 곡성실업고등학교 장장렬 · 39
 · 책속에 푸른꿈이 三岐中學校 姜在基 · 43
- 隨 筆 · 人生七十而 古來稀라는데 金在哲 · 46

이 고향 詩人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동 식 · (수서전화국 기술부장) <5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랑 타령 49 · 나의 옛동네(磊竹里) 51 · 고 향 52 · 直指人心 52 · 한톨의 밀알 53 ■ 서 용 규 · <7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비바람에 들리는 소식에는 54 · 통 곡 55 · 가난한 시인은 56 · 간호사 56 · 가 목 58 · 물어 볼수도 할수도 없는 인사 58 · 그 시간 그 노래는 60 · 사랑이 없으면 6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 경 섭 · <8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生流轉 63 · 황혼길 63 · 가을비 64 · 일월장구 64 · 가시없는 마음 65 · 歸鄉길 65 · 소 망 66 · 豐漁祭 66 ■ 함 평 석 · <4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대 눈물을 보았네 67 · 말해주오 67 · 밤안개 68 · 변산 해변에서 우리는 ... 68 |
|---|--|

◎ 광주검찰청주최 글짓기 대상

- 가을바다곡성고 3년 이미라 · 69

◎ 교보생명 글짓기 최우수상

- 해지는 언덕에서곡성고 3년 박양정 · 70

글짓기 백일장 (입상작품)

■ **고등부**

- 가정윤리가 확립된 그날이오면
.....곡성고1년 조형문 · 71
- 그날이 온다면
.....곡성고2년 서봉효 · 73
- 온전한 한반도를 기대하며
.....석곡고2년 김정임 · 74
- 내 가슴의 큰산
.....석곡고2년 윤정자 · 76
- 새벽길
.....옥과고2년 정숙진 · 77
- 새벽길
.....곡성고2년 형건영 · 78

■ **중등부**

- 단군 할아버지와 향아리
.....곡성중2년 조민철 · 79
- 단군 할아버지
.....곡성중1년 최유론 · 80
- 단군 할아버지와 우리 조국
.....옥산중2년 박은미 · 81
- 섬진강
.....삼기중3년 오지혜 · 82
- 섬진강
.....옥산중3년 김수영 · 83

■ **초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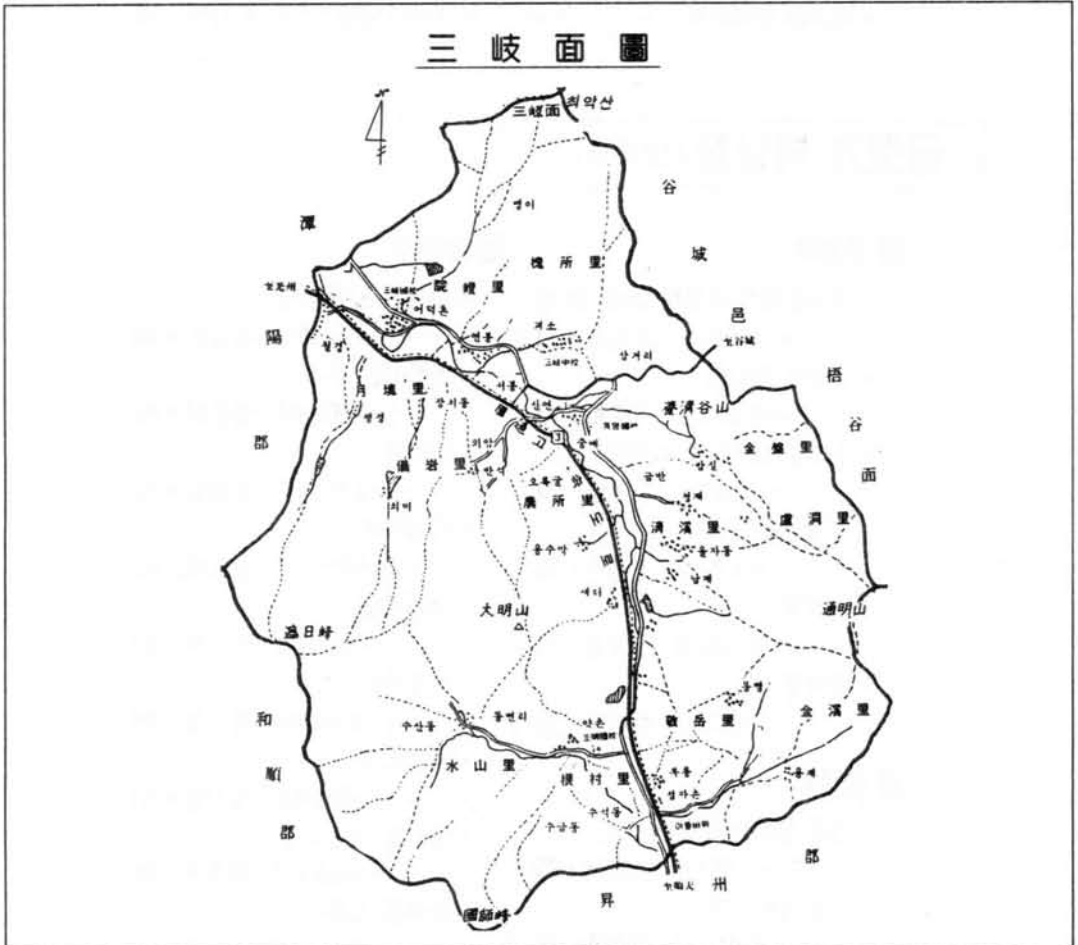
- 흥겨운 농악놀이
.....삼기초5년 김은희 · 84
- 변함없는 우정
.....동계초6년 김은희 · 85
- 달리기
.....오곡초4년 오준환 · 86
- 아침이슬
.....곡성중앙초4년 황보람 · 87
- 아침이슬
.....곡성서초6년 신소현 · 88
- 아침이슬
.....암록초5년 황인정 · 89
- 가을소풍
.....곡성서초 임지연 · 90
- 즐거운 가을소풍
.....옥과초3년 박종구 · 91
- 즐거운 소풍
.....삼기초2년 노은미 · 92
- 단풍잎
.....곡성서초2년 김상엽 · 93
- 단풍잎
.....곡성중앙초3년 정미경 · 94
- 단풍잎
.....곡성서초1년 전치상 · 95

■ **부 록**

- 친척관계와 계촌법.....96
- 친척간 호칭99
- 토막상식109

三 岐 面

1. 管內圖



2. 沿 革

三國時代에는 百濟의 欲乃에 속하였고 統一新羅때에는 谷城郡에 속하였다. 朝鮮朝末以前에는 本面の 院澄里가 玉里縣 兼坊面(現兼面)에 속하였고 나머지 全地域은 本面に 속하였으며 1914年 行政區域 변경에 따라 12個里에 26個 行政區域을 管轄하면서 現在에 이르고 있음.

3. 位 置

東經 127° 12', 北緯 35° 10' 에 位置하여 東으로 梧谷面, 西로 兼面, 南으로 石谷面, 北으로 立面과 接境을 이루고 있음.

4. 地型·地勢

四方이 峻峰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不老峙에서 發源한 流川의 一流는 南쪽의 石谷方面으로, 다른 一流인 三岐川은 玉果面으로 下流하고 있는데 그 溪谷을 따라 일구어진 耕地는 山間地이지마는 土質이 肥沃하고 水源도 良好한 편임.

人口 및 姓氏現況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2,627	1,298	1,329	750	210	960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崔	鄭	尹	姜	安	吳	白	盧	文	全	孫	楔	孔	宋	梁	徐	其他
968	242	107	70	49	21	71	18	49	14	26	26	20	7	13	8	19	16	7	27	15	143

■ 의동(義洞)마을 (院嶝1里)

□ 마을 形成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129	58	71	40	9	49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崔	鄭	姜	安	白	全	梁	其他
49	11	6	5	1	2	1	2	1	3	4	2	11

院嶝리는 當初에 鶴岳山아래 新興村이라는 마을이 形成되어 있었는데 地帶가 높고 日常生活이 不便하여 現角端과 馬田중간인 곳으로 옮겼다가 仁祖 1637年 다시 現 院嶝리로 옮겨왔다는 說이 있으나 확실한 근거는 알수 없고 5個(義洞, 內洞, 仁洞, 鶴洞, 於德) 自然部落으로 形成된 마을이다. 最初入住者는 알수 없으나 南原梁舞徽(一名 孝元)氏가 全州李氏와 婚姻本面 山水里에서 1704年頃 移居하였다함.

마을현황

□ 地名由來

院嶝里는 當初에 驛院制 施行當時 “院”字와 飛嶝의 “嶝”字를 본따서 院嶝里라 불리웠다는 說이 있으며 義洞은 仁, 義, 禮, 智의 順에 따라 現 院嶝里 3구가 먼저 첫字인 仁洞으로 稱하였기 때문에 다음字인 義字를 따서 義洞이라 하였다함.

■ 내동(內洞)마을 (院嶝2里)

□ 마을 形成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94	42	52	34	8	42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鄭	尹	吳	白	俣	其他
42	17	3	2	1	1	1	2	7	1	7

前者 院嶝一區里와 같고 密陽朴模鎮(朴泰亨의 5代祖)氏가 光山金氏와 婚姻하여 本面 水山里에서 1749年頃 院嶝里로 移居하여 定着하였다함.

□ 地名由來

內洞이라고 하는 마을은 마을이 커서 院嶝里를 5個部落으로 나누었을때(義洞, 內洞, 仁洞, 鶴洞, 於德) 仁洞과 義洞사이 안골에 있다고 하여 內洞이라고 命名하였음.

■ 인동(仁洞)마을 (院嶝3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116	52	64	27	17	44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崔	鄭	姜	吳	白	盧	全	孔	宋	徐	其他
44	7	3	3	4	3	4	2	1	2	3	1	1	1	1	8

□ 마을 形成

前者 院嶢1區里와 같고 最初入住者는 알수없으며 1700年頃 全州李氏가 寶城에서 入住 定着하였다하며 그후 光山金氏 慶州金氏 등이 入住 現在에 이르고 있음.

□ 地名由來

院嶢里 마을중 始初마을로써 仁, 義, 禮, 智의 첫글자를 따 仁洞이라 하였으며 마을 조 성시에는 마을 가운데로 연결천이 있었으나 現在는 우회하고 있음.

■ 학동(鶴洞)마을 (院嶢4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52	28	24	12	4	16			
姓			氏 (戶)					
計	金	李	朴	鄭	姜	其他		
16	7	1	4	1	2	1		

□ 마을 形成

前者 院嶢一區里와 같고 마을이 점차 仁洞, 義洞, 內洞이 차례로 形成되고 本里 鶴洞은 그후 密陽朴 載祿氏가 水原白氏와 結婚하여 妻家近處를 따라 最初로 1800年頃 立面 齊月里에서 이곳으로 移住定着하였다 함.

□ 地名由來

本里는 地形이 鶴의 形이라 하여 鶴洞이라는 說과 鶴岳山 밑에 雲中飛 鶴穴이 있다하여 鶴深이라 稱하였다는 兩說이 있음.

■ 어덕촌(於德村)마을 (院嶢5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119	57	62	46	4	50			
姓			氏 (戶)					

마을현황

計	金	李	朴	崔	鄭	尹	姜	安	吳	白	盧	文	梁	徐	其他
50	11	4	7	3	3	2	3	1	1	2	1	1	1	2	8

□ 마을 形成

豊川盧氏 盧世中代가 1680年頃 慶南 咸陽에서 살다가 父親盧溥과 兄弟들이 각각 흩어졌는데 盧世中이 이곳에 와서보고 安住 할곳이라 定着하였으며 當時 심은 面事務所 入口 당산나무도 무성히 자라고 있음.

□ 地名由來

三岐마을을 내려다보는 陽地바른곳에 位置하여 마을이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 於德村이라 하였으며 80年前에는 牧羊里와 合해 100戶가 있었으나 자리가 비좁고 位置가 좋지 않아 차츰 줄어들어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같은 院嶝里나 谷城縣에 속하였음.

■ 월경(月境)마을 (月境1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132	64	68	35	10	45				
姓					氏 (戶)				
計	金	李	朴	鄭	尹	文	全	梁	其他
45	9	7	9	7	1	1	1	4	6

□ 마을 形成

本里는 高麗末葉에 南陽洪氏가 最初로 터를 잡고 그후 全州柳氏가 入住하였다 하나 正確한 年代와 入住者는 알길이 없고 1510年頃 草溪鄭思義氏가 立面 三梧里에서 居住하다 이곳에 定着 15代孫에 이르고 있음.

□ 地名由來

本里는 當初에 谷城縣과 玉果縣의 境界에 位置하였다 하여 “越境里”라 稱하였는데 朝鮮朝中葉 마을 유림들이 “越”字보다는 “月”字가 더 韻致가 있다 하여 “月境里”로 改稱한 것이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도 兼面과 境界하고 있음.

■ 행정(杏亭)마을 (月境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29	18	11	9	2	11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鄭	梁	其他
11	1	1	1	1	5	1	1

□ 마을 形成

林長者가 最初入住하고 그후 德水張氏가 入住하였다는 說이 있으나 알길이 없고 1675年頃 草溪 鄭雲長氏가 月境里에서 移住定着하여 現在 10代孫에 이르고 있음.

□ 地名由來

500年前 聖德處女(沈淸傳의 由來)가 光陽에서 觀音像을 모시고 梧山觀音寺로 가던 途中 쉬는 곳 마다 정자(亭)를 붙여오다 이곳에서 別世를 했는데 이분이 生前에 遮日峯 넘어 암자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살구 꽃이 만발한 마을이 大村을 이루고 있어 살구 杏字를 따서 “杏亭”이라 불렀다 함.

■ 연봉(蓮峯)마을 (槐所1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166	77	89	50	18	68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鄭	尹	姜	安	白	盧	梁	徐	其他
68	15	12	4	2	3	3	5	2	7	1	2	2	10

□ 마을 形成

本里는 朝鮮朝中葉 新興村에 居住하던 劉氏가 耕地따라 내려와 터를 잡고 村名을 蓮峯이라 했다하며 그후 慶州 崔景洙氏와 水原 白柄善氏, 晉州 姜閔煥氏 등이 入住定着 現在에 이르고 있음.

마을현황

□ 地名由來

마을 앞의 山勢가 蓮花到水 形局이라 하여 蓮峯과 新蓮이란 마을로 命名하였다 함.

■ 괴소(槐所)마을 (槐所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169	122	47	60	29	89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崔	鄭	尹	姜	吳	盧	文	全	宋	梁	徐	其他
89	12	10	4	1	2	4	8	19	1	2	5	1	1	2	1	16

□ 마을 形成

口傳에 의하면 新興村에서 셋터굴로 옮겨살다가 1600年頃에 劉氏가 이곳을 開基 마을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후 1630年頃 晉州 姜帽叟氏가 儀岩으로부터 入住 定着하면서 부터 마을이 번창하였음.

□ 地名由來

本 마을은 鶴岳山 기슭에 자리잡고 大明山을 바라보며 頃斜진 陽地바른 곳에 位置하며 當初에는 形局이 고향이形이라 하여 괴소(猫所)라 불렀으나 1830年頃 朝政出入이 잦은 姜鶴山 先生께서 “猫”字를 “槐”字로 바꾸어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金亭마을은 當初 황새 굴에서 1978年 聚落構造改善으로 이곳으로 옮겨졌는데 “쇄쟁이”를 金亭이라 命名하여 부르고 있음.

■ 서봉(棲鳳)마을 (儀岩1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50	24	26	14	7	21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安	全	徐	其他	
21	6	2	2	3	3	1	1	3	

□ 마을 形成

當初 全州 李光鉉氏가 三岐面 院嶺2區(內洞) 現 白鍾萬氏 宅에서 居住하다 1901年 이
곳으로 入住定着하였으며 그후 天安 全在龍氏가 入住定着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음.

□ 地名由來

마을앞 발가운데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봉황새가 서식한 곳이라
하여 棲鳳들이라 불리우고 있으며 들이름을 따서 棲鳳마을이라 함.

■ 의암(儀岩)마을 (儀岩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87	47	40	22	4	26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鄭	尹	姜	安	盧	其他
26	8	1	1	2	4	1	1	3	4	1

□ 마을 形成

竹谷面 鳳亭里에서 晉州姜 毅虎氏가 1604年頃 이곳에 入住 定着 長峙와 大明山에 둘러
쌓인 이 地勢를 보고 避難之地라 하여 마을터를 닦았음.

□ 地名由來

礪石과 儀岩 두 마을이 있는데 地表에 암반이 많이 깔려있어 돌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礪石이라 하였으며 또한 바위와 폭포가 비슷하게 생겨 儀岩이라고 命名하였음.

■ 금반(金盤)마을 (金盤1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88	47	41	26	5	31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崔	鄭	姜	安	吳	盧	其他
31	7	2	4	4	1	1	1	1	1	1	8

마을현황

□ 마을 形成

昌寧 曹漢榮氏가 1700年頃(肅宗 26年)에 和順 春陽에서 入住 定着 現在 7代孫에 이르고 있으며 當初 金盤, 雲谷, 배고개 등 3個 마을로 形成되었으나 雲谷마을은 1979年 聚落構造改善 事業으로 三距里 밑 現位置로 옮기어 東星마을을 이루었음.

□ 地名由來

마을 地形이 소반형을 이루고 있어 “金盤”이라 하였으며 한편 東星마을은 兄弟峰으로부터 굽이쳐 흘러 내려온 山脈이 우뚝 솟아 台峰을 이룬 安山을 등지고 東으로 通明山, 南으로 遮日峰을 바라보는 高地帶에 位置해 항상 구름이 감싸고 있다하여 雲谷이라 이름 하였으나 지금은 마을이 없어지고 「동막골」과 「장성백이」사이로 옮기어져 “東星”이라 하였음.

■ 울곡(栗谷)마을 (金盤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116	53	63	30	8	38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姜	吳	盧	全	俁	其他
38	9	5	1	6	2	4	3	2	9	4

□ 마을 形成

海州 吳載德氏가 1680年頃 南原에서 살다가 山紫水麗한 通明山 아래 자리를 잡고 安住 8代孫에 이르고 있으며 錦山 金益煥氏가 1830年頃 三岐面 水山里에서 居住하다가 金氏의 터가 이마을이 알맞다고 여기고 移住 定着하게 되었으며 마을 당산나무는 그때 심어졌다고 傳하고 있음.

□ 地名由來

마을뒤로는 通明山脈이 뺨어내려 있고 地形이 곧을정(貞)字 形으로 三韓時代에는 石井이라고 불리우는 고을 「郡」의 소재지 였다고 傳해 오고 있으며 마을 주위에는 밤나무가 무성하여 밤울(栗)字와 谷字를 붙여 “栗谷”(밤실)이라 함.

■ 청계(淸溪)마을 (淸溪1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81	35	46	25	3	28			
姓			氏 (戶)					
計	金	李	鄭	尹	盧	全	僕	其他
28	1	3	7	1	1	2	9	4

□ 마을 形成

朝鮮朝 中葉에 柳氏가 入住 兩班氣勢를 피웠다는 說이 있으나 1770年頃(英祖때) 慶州 僕 萬菊氏가 全北淳昌으로부터 分家 入住 定着하여 現在 9代孫에 이르고 있음.

□ 地名由來

마을앞 들이름이 "몰이동"이라 한것은 金龜沒泥穴이므로 金거북이가 사는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다하여 淸溪라 命名하였음.

■ 봉현(鳳峴)마을 (淸溪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136	67	69	36	6	42			
姓			氏 (戶)					
計	金	李	朴	崔	姜	孫	孔	其他
42	14	3	1	3	1	1	14	5

□ 마을 形成

1849年頃 曲阜孔道燁氏가 潭陽으로부터 入住 定着하여 6代孫에 이르고 金寧 金致堧氏가 南原으로부터 入住하여 7代孫에 이르고 있으며 兩姓氏가 大部分을 이루고 있음.

□ 地名由來

本마을은 通明山과 大明山 사이에 位置하여 地勢로 보아 "可活萬人之地"라 하여 후세

마을현황

에 子孫이 번창하고 榮華를 누린다는 風水說에 의하여 자리잡은 마을이며 좌측에 새지등과 선우고개가 있어 村名을 “鳳峴”이라 稱하였음.

■ 중외마을 (農所1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180	89	91	52	12	64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崔	鄭	姜	安	吳	全	宋	徐	其他
64	18	10	4	2	4	4	3	1	1	1	1	4	11

□ 마을 形成

光山 金永圭氏가 1936年 露積村에서 居住하다 중외들 中心地에 入住하여 7年뒤 全州 李鍾權氏를 비롯 利川 徐仲陽氏가 移住하였고 1945年 解放이 되자 露積村에서 居住한 全家口가 이곳으로 移住하였음.

□ 地名由來

마을뒤에 배고개가 있고 앞 鷓岳山에 배를 매는 고리가 있다하여 不老峙에서 흐르는 물과 金盤에서 흐르는 물이 合流되고 보니 Y形으로 보여 배의 형국이 틀림없다 하여 “舟”字와 들이름이 중외이기에 곡식이 산적같이 쌓인다는 뜻에서 “山”字를 택하여 “舟山”이라 命名하였으며 一名 “중외”라 불리우고 있음.

■ 오리동(梧里洞)마을 (農所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44	24	20	8	5	13								
姓			氏 (戶)										
計	金	李	鄭	安	盧	宋	徐	其他					
12	3	1	1	1	1	3	1	1					

□ 마을 形成

元農所라 불리우는 이마을은 1600年頃 壬辰亂때 避難處로 全州李氏가 제일먼저 터를 잡았고 그후 文化柳氏, 安東權氏가 들어 왔으며 계속 여러 姓氏가 모여들어 마을이 形成 되었으며 朝鮮朝末葉에는 巨富人 金海魯氏(主事벼슬)가 居住하면서 50戶까지 되었으나 6.25動亂때 他地로 移住하는 家口가 늘어 지금처럼 적은 마을이 되었음.

□ 地名由來

앞산이 “臥牛穴”이고 옆산에 “취빚장”들이 있으며 뒷산은 갈매재가 있어 소가 農事와 더불어 일한다하여 農所라 하였으며 마을 양편으로 흐르는 개울물이 龍의 수염과 같다하여 용수막(龍鬚幕)이라 불리 子孫이 번창하리라는 說이 있으며 梧里洞은 湯鹿飲水의 사슴穴이 있다하여 梧鹿골이라 불리웠다고 함.

■ 대명(大明)마을 (農所3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38	20	18	10	7	17	
姓			氏 (戶)			
計	金	李	朴	盧	其他	
17	7	1	3	1	5	

□ 마을 形成

大明山 슬기를 이어받아 마을터 샘물이 좋아 1922年 盧洞2區(南溪)로 부터 光山 金永彩氏가 開基入住하여 마을을 이루고 있음.

□ 地名由來

大明山을 뒤에 두고 通明山을 바라보는 산기슭 마을로 水源이 좋고 농토가 肥沃하여 山地利用이 좋아 새로 터를 잡았다 하여 새터(新基)라고 하며 大明山 밑에 位置한다하여 大明마을이라 불리우고 있음.

마을현황

■ 노동(蘆洞)마을 (蘆洞1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56	29	27	17	5	22	
姓			氏 (戶)			
計	金	李	趙	其他		
22	1	13	1	7		

□ 마을 形成

高麗末 1300년에 羅氏와 洪氏가 創村하였다고 傳해지고 있으며 1780年頃(正祖) 全州 李莞氏가 潭陽에서 入住 定着하여 現在 7代孫에 이르고 있음.

□ 地名由來

通明山을 등지고 山間溪谷에 位置한 位置한 部落인데 風水地理說에 의하면 “飛鴈含蘆”의 穴이 있다하여(기러기가 갈대를 끌고가는 형) 蘆字를 따서 蘆洞이라 하였으며 또한 「갈골」이라 부름.

■ 남계(南溪)마을 (蘆洞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60	29	31	19	2	21	
姓			氏 (戶)			
計	金	朴	崔	鄭	其他	
21	10	7	1	2	1	

□ 마을 形成

高麗末葉 康無氏가 創村 15代에 이르렀으나 孫이 끊기었고 1680年頃 光山 金相白氏가 全北 淳昌에서 分家 入鄉하여 定着 9代孫에 이르러 있고 같은 時期에 密陽 朴其國氏가 谷城 梧谷에서 入住 定着 8代孫에 이르고 있음.

□ 地名由來

地理적으로 보아 通明山을 등지고 三岐面의 南쪽 溪谷에 位置하였다하여 南溪라 부르게 되었음.

■ 동편(東便)마을 (水山1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115	46	69	26	8	34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鄭	尹	宋	其他
34	16	3	3	2	2	1	1	6

□ 마을 形成

平山申氏가 숙종때 入住하여 마을 入口에 열두 大門을 달고 살아온 피난처로 有名했으며 1650年頃 金海 金益錫氏가 靈岩에서 入住했으며 光山 金聖堧氏가 木寺東面 大谷에서 移住 定着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음.

□ 地名由來

南으로 國師峯을 바라보며 西에 遮日峯, 北으로 大明山 등 名地에 둘러쌓여 山의 景致가 아름답고 맑은 물이 흘러 山紫水明하다 하여 水山이라 부르고 있으며 마을을 가로지르는 河川을 中心으로 東便, 西便으로 부르고 있음.

■ 수산동(水山洞)마을 (水山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68	31	37	19	4	23			
姓			氏 (戶)					
計	金	李	朴	梁	其他			
23	16	3	1	1	2			

마을현황

□ 마을 形成

金海 金大吉氏가 1810年頃 和順郡 綾州에서 入住 定着 現在 8代孫에 이르고 있음.

□ 地名由來

산이 깊고 골짜기 물이 맑아 水山洞이라 이름 하였음.

■ 근촌(根村)마을 (根村1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231	108	123	67	9	76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崔	鄭	姜	吳	白	盧	孫	梁	其他
76	11	8	2	14	1	6	5	6	5	1	7	2	8

□ 마을 形成

密陽朴氏가 1530年頃 入住 定着 陽地村에서 居住하면서 산정통에 당산나무를 심었다하며 耽津 崔氏가 入住하여 陰地村을 이루었고 1650年頃 玉川 趙有眞氏가 全北 玉川에서 入住 10代孫에 이르고 그후 安東 孫昌翰氏가 慶北 安東에서 入住 現在 8代孫에 이르고 있음.

□ 地名由來

谷城의 名山인 通明山이 마을위의 大明山脈에서 흘러내려 갔다는데 근거하여 뿌리 根字를 先字로 根村이라 命名하였다 하며 水山골에서 흐르는 河川을 中心으로 陽地쪽에 位置한 마을을 陽地村이라 하며 陰地쪽 마을을 陰地村이라 함.

■ 수금(繡錦)마을 (根村2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100	49	51	24	9	33				
姓						氏 (戶)			
計	金	趙	崔	鄭	安	吳	梁	徐	其他
33	18	1	1	1	1	7	1	1	2

□ 마을 形成

1716年頃 金寧 金有星氏가 忠南 礪山에서 入住 明鏡之水가 흐르고 있어 살기 좋은 地域 이라 선정하여 자리잡고 후에 寶城 吳再基氏가 들어와 마을을 形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地名由來

마을이 둘이있는데 마을 兩便에 흐르는 물을 城이라 하여 水城으로 부르던 村名이 水石 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뒷마을을 國師峰 기슭에 位置한 골짜기와 숲으로 둘러있으며 단풍 이 비단같이 물이들어 수를 놓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하여 비단繡字에 비단錦字를 命名 繡錦이라 부르며 1930年 行政區 改編에 의해 根村2區로 區分 되었음.

■ 복용(伏龍)마을 (敬岳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108	50	58	26	9	35						
姓			氏 (戶)								
計	金	李	朴	趙	鄭	吳	盧	孔	梁	徐	其他
35	5	4	2	3	5	1	1	1	8	1	4

□ 마을 形成

年代와 姓氏는 알수 없으나 옛날엔 질그릇 굽는 장인들이 살아오던 곳으로 용호동(敬岳 앞들 가운데 있었는데 現在는 없음)에서 살던 南原梁氏가 敬岳洞으로 들어오자 장인 들은 산동으로 물러나고 金鷄里 명동(現在는 없음)에서 살던 梁氏가 내려와 마을을 이루웠 으며 潭陽 月山에서 온 玉川趙氏도 용호동에서 온 南原梁氏와 비슷한 해에 들어와 마을을 이루고 있음.

□ 地名由來

龍이 얹드려 있는 形局이라 하여 伏龍과 敬岳洞 그리고 길옆에 있는 큰돌이 있었는데 길이 비좁아 왕래할 때 그 바위를 붙잡고 코를 바위에 얹고 건넜다하여 "코순바위"라 하고, 세 마을이 있었는데 일제시대때 區長이 敬岳洞에서 살고 있어서 1914年 行政區域名 을 3個 마을을 합쳐 敬岳里라 하였음.

■ 통명(通明)마을 (金鷄里)

人 口 (名)			家 口 (戶)			備 考		
計	男	女	農 家	非農家	計			
63	32	31	16	6	22			
姓			氏 (戶)					
計	金	李	趙	鄭	姜	梁	徐	其他
22	2	1	1	9	2	3	1	3

□ 마을 形成

200餘年前에 光山大村에서 利川 徐贊迪氏가 山水가 좋아 入住 定着하여 現在 7代孫에 이르고 있음.

□ 地名由來

傳하는 바에 의하면 佛經學者인 龍仁大師가 태어났다 해서 龍溪라는 마을과 通明里, 明洞(現在 없음) 아랫물(현재 없음)등 4個 마을이 있었는데 現在는(通明里, 龍溪里) 2개 마을이 있으며 通明 산하에 子坐午向(正南向)으로 位置하여 金鷄包卵 形局이라 하여 金鷄里로 부르며 一名 通明里라고 부름.



하루에 한번쯤은

장 장 렬

(곡성실업고등학교장)

1. 아름다운 자연과 높은 하늘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쳐다보자. 별이 깔린 밤 하늘, 흰 구름이 떠도는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 우리의 생활은 자연(自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인간이 자연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분명 병들어 간다는 증거다.

본래 인간은 자연의 아들이요, 자연의 땅이다. 자연은 우리를 낳은 위대한 어머니이다.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 흙 위에서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발바닥이 흙을 밟지 않을 때 인간의 몸과 마음에는 병이 생긴다.

우리는 오늘날 문명(文明)이라는 이름 아래서 산업과 도시화라는 이름아래 우리의 따뜻한 품이요, 어머니인 자연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다. 조용한 오솔길을 걷고, 맑은 풀냄새 향기를 맡고, 깨끗한 시냇물에 발을 적시고, 푸른 잔디밭에서 몸을 쉴 줄을 모른다. 인간이 자연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고향(故郷)을 떠나는 것이다. 마음의 고향, 몸의 고향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고 온누리에 밝은 빛과 따뜻한 열을 주는 태양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뜰의 한 구석에 심은 화초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 주어야 한다. 그 때 우리는 문명으로 병들고 상업화로 메말라진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청신(淸新)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흙의 아들이요, 자연의 딸인 인간이 흙과 자연을 망각할 때 심신(心身)에 병이 생긴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높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

2. 착한 일을 남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자. 일일일선(一日一善)을 우리의 생활신조(生活信條)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바쁜 생활을 한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나의 일에 골몰하면서 살아간다. 내 몸, 내 집, 내 자식, 내 가정, 내 행복, 내 남편, 내 아내, 항상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중심으로 뱅뱅 돌아가는 생활이다.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용감하게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남을 위하여 순수하게 봉사(奉仕)하는 일을 하자. 남에게서 받을 생각을 말고 줄 생각을 하자. 주되 받기를 바라지 말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주자. 그것이 진정한 봉사다. 받기를 바라면서 주는 것은 봉사가 아니다. 주고 받는 계산을 초월하여 오로지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저 주는 것이 봉사다. 하루에 한 번쯤은 남을 위해서 순수한 봉사의 실천을 해야한다.

남에게 따뜻한 말을 던지고 맑은 웃음을 선사하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자. 나의 시간을 제공하고 노력을 제공하고 땀을 제공하자. 그러면 상대방은 반드시 기쁘고 고마워 한다. 일일일선(一日一善)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즐겁고, 우리의 사회는 얼마나 명랑해질 것인가.

오늘날 남을 위해서 한 가지의 착한 일을 하였다라는 기쁨을 안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축복과 감사 속에 편안히 쉴 수 있다. 그 착한 일이 반드시 큰 일이 아니라도 좋다. 남을 위해서 매일 한 번쯤은 착한 일을 해 보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소중하다. 이 소중한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3. 건강(健康)과 행복(幸福)을 약속하는 땀을 흘리자.

땀은 인간이 흘리는 고귀한 액체다. 우리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고, 우리의 온 몸에서 땀냄새가 풍길 때 우리는 생명의 건강을 되찾고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땀처럼 고맙고 믿음직스러운 것이 없다. 땀에는 거짓이 없다. 소매를 걷어 붙이고, 방을 치우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나면 우리의 몸에서 땀이 흐른다. 땀이 흐르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서 허영의 꿈이 사라지고, 사치의

때가 없어지고 안일(安逸)의 하품이 자취를 감춘다. 땀을 한바탕 흘리고 나면 깨끗해지고 마음이 상쾌해진다. 생의 보람이 느껴지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위대한 것, 알찬 것, 아름다운 것, 모든 값있는 것은 모두 땀의 산물이요, 땀의 결정(結晶)이요, 땀의 열매다.

인생이 따분하다고 느낄 때에는 한바탕 땀을 흘리며 일에 몰두해 보라! 삶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전신(全身)이 땀 투성이가 되도록 일을 해보라.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가치를 인식할 것이다.

인간이 땀을 흘리지 않는데서 모든 병이 생긴다. 몸의 병도 생기고 마음의 병도 생긴다. 땀을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라. 몸과 마음에 병이 없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온 몸이 땀투성이가 되도록 일에 골몰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과 건강을 약속한다.

4. 양서(良書)로 마음의 밭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책을 읽자. 책을 읽되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 나를 살찌게 하는 책, 나의 인격을 풍성(豐盛)하게 하는 책, 나의 정신을 정화(淨化)시키는 책,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책, 나의 마음의 눈을 활짝 뜨게 하는 책, 우리는 이러한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릇된 독서는 인간의 정신에 해독을 끼친다. 음탕한 소설, 불륜(不倫)과 선정(煽情)으로 가득한 저속한 문학은 인간의 마음을 더럽히고 흐리게 만들 뿐이다.

독서를 하지 않으면 인간의 정신적 창조력이 고갈된다. 풀 한포기 없고 샘물 한 줄기 흐르지 않는 벌판처럼 우리의 마음이 거칠고 황량(荒涼)해지기 쉽다. 책상머리에 애독하는 책을 몇권 놓고 틈나는 대로 펼쳐보는 습관을 갖자.

위대한 책 속에는 정신의 보석이 빛난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 또 지혜로운 교훈이 있고 감격의 원천(源泉)이 있다. 우리에게 겸허(謙虛)한 성찰(省察)을 추구하는 깊은 말씀이 있다. 넓은 정신적 우주(宇宙)의 파노라마가 있다.

우리의 머릿속에 곰팡이가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책을 읽자. 우리

의 생활에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 내 인생에 깊이와 보람과 무게를 주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독서를 하자.

5. 신(神)앞에 자기 반성(反省)과 자기 검토(檢討)를

끝으로 하루에 한 번쯤은 엄숙한 마음으로 천지신명(天地神明)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진지한 자기 반성, 준엄한 자기 검토의 시간을 갖자. 인생은 선(善)을 향하는 부단한 노력이다. 빛을 찾아서 끊임없이 전진하려는 향상(向上)의 과정(過程)이다. 자기 완성을 위한 꾸준한 수양과 공부의 생활이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높은 목표가 없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10분 동안이라도 좋다. 조용한 명상(冥想)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를 스스로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해야 할 구실을 제대로 다하고 있는가. 나를 속이고 또 남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나는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좋다. 적어도 10분간은 진지한 반성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는 저마다 인생에서 한 가지 이상의 간절한 높은 소원(所願)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

나와 하나님께서 마주 서는 시간. 내가 부처님 앞에 꿇어 앉는 시간. 내가 천지신명 앞에 서는 시간. 우리에게서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종교요, 기도요, 수양이요, 참선(參禪)이요, 자기 심화(自己深化)요, 자기향상이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시간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요, 인생을 곁핥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거짓없는 반성 진지한 자기검토(自己檢討)의 시간을 신(神)앞에서 가져보자.



책속에 푸른꿈이

姜 在 基

(三岐中學校)

나는 책을 잘 안 읽는 편이다. 新聞이나 雜誌등에 掲載된 베스트셀러나 마음에 든 책은 종종 購入하지만 정작 마음을 먹고 손에 들고 읽은 책은 몇 권 안된다. 特히 끝까지 단숨에 읽은 책은 거의 전무하다 싶이 적다.

내가 이렇게 책을 잘 읽지 않는 것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스럽게만 느껴진다. 어릴적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했고 그래서 책 속의 맛을 느껴보지 못한 그때 그 시절이 못내 아쉽게만 생각된다.

지금 내 周圍인 事務室 책상 앞뒤나 집의 書臟, 官舍의 머리맡에는 읽을만한 책들이 相當量 쌓여 있다. 읽기위해 購入해다 놓은 책들이지만 꼭이 읽지 못하고 손때만 묻어가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아름답기로도 有名했지만 책을 무척 사랑했고 冊읽기를 아주 좋아해 그녀는 그 속에서 尙大한 知識을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안토니오도 10萬卷의 책을 收集해서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하여 그의 마음을 달래 주었다고 한다.

시저의 로마軍이 이집트를 짓밟고 放火와 掠奪과 强姦으로 엄청난 苦難이 닥쳐왔을 때 클레오파트라라는 占領軍 司令官에게 그날 하룻밤의 쾌락의 贈物로 바쳐지는 形態로서 시저앞에 나서게 된다. 그렇지만 시저는 단번에 그녀에게 屈伏당하고 만다.

軍事的으로 支配者가 되었지만 文化的 水準에서 클레오파트라라는 시저를 完全히 壓倒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창한 로마語에 幅 넓고 豊富한 知識, 賢明하고 올바른 判斷등 많은 讀書에서 얻은 結果였다고 한다.

冊에 의해서 얻어진 클레오파트라의 豊富한 教養은 世界를 征服한 시저와 안토니오를 품안에 안을 수 있었다. 그래서 冊속에 담겨있는 知識과 教養과 經驗을 사랑해야 한다.

短見인 나에게 글을 付託하던 院長님의 의도가 정말이었던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무척 苦心을 많이 했다. 紙面을 割愛해서 내글을 실어 주신다기에 설레인 마음으로 펜을 들었으나 글다운 글이 되지 않을가 보아 여러번 망설였지만 그 以上 기쁠 수가 없어 우려스러웠지만 몇자 적어 나간다.

나는 지금 조그마한 間村의 中學校에 勤務하고 있지만 내가 서있는 자리가 부끄럽기 그지 않다. 왜? 나는 아는 것이 不足하기 때문이다.

배운 것이 적었으니 아는 것이 무에 있겠는가. 그래서 부끄러울 뿐이다. 가방만 들고 學校다니다 卒業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더욱 후회하고 다짐해 본다. 冊속에서 꿈을 찾자고.

그러나, 또 來日이면 새로운 後悔로 점철 될 것이다.

적게나마 내손에 冊을 들고 내 눈앞에 冊을 펼쳐놓아 보려고 무척 애썼지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음은 어렸을 때부터 冊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와 習慣을 形成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임을 實感하지만 어느 날엔가는 내 周圍에 있는 冊들을 꼭 내 良識으로 消化해 내겠다는 각오는 변함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공부랍시고 情神을 써서 해본 記憶이 고작 한두번 뿐이다. 高等學校 卒業후 就職도 안되고 進學도 못하고 언제 工夫를 해보았는가 할 정도로 머릿속은 텅빈 상태에서 半年余 동안 虛送歲月하다가 지금은 平生 한몸이 된 親舊의 채찍과 勸誘로 4個月余 머리 싸매고 冊과 씨름하여 大學에 進學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 때와 校監이라도 해보아야겠다고 변소길 이외에는 문밖을 나와보지도 않고 쪼그리고 앉아 冊의 모서리가 닳도록 책장만 괴롭히던 두달여.

이것이 고작인데 어찌 내게 아는 것이 있겠오?

그러기에 나는 책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많이 읽어야겠다는 欲求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

冊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또 다른 하나는 70老齡에도 每日 冊을 읽으시는 尊敬하는 元老先輩님께서 無言의 教訓을 받았었다. 그분의 書齋 兼 應接室에 들어가보면 앞, 뒤, 옆 모두 책으로둘러 쌓여있고 그 많은 冊에서 얻은 새로운 情

報와 知識을 구수한 말담으로 앞 뒤 정연한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술에 醉하기 전에 該博한 知識과 教養에 醉해 恍惚境에 헤멜 정도이다.

한 번은 그분과 이웃고을로 點心兼 술자리 約束이 있어 찾아가다가 約束場所가 아닌 다른 方向으로 가시기에 의아히 여기며 따라가보니 冊房에 들러 2~3권의 책을 고르신 뒤 約束場所로 가시면서 “술을 마셔버리면 冊을 살 수 없잖아.”

젊은 나는 부끄러운 마음 주체할 수가 없었으나 그뒤로 나도 冊을 구하는데는 인색하지 말자고 다짐해 보았다.

나는 이 글을 쓰게 된 것을 무척 多幸으로 생각한다. 내 머리속에는 冊을 많이 대하고 또 熱心히 읽어 그 冊속에서 새로운 經驗과 教養을 쌓아 내 삶의 앞날에 潤滑油가 될 수 있게 다짐할 수 있는 機會가 되어졌기 때문이다.

冊을 읽는 것은 世上을 읽는것이라고 했다. 책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知識과 참된 삶의 價値 이상의 이모 조모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冊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고 自覺하게 하고 깨우쳐 주게하는 役割을 한다. 그래서 사람은 冊을 만들고 冊은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 冊을 왜 읽어야 하고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는 제쳐두더라도 책읽기를 아무리 強調해도 모자람이 없다.

생을 많이 살아온 사람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經驗만큼 重要的 것이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人生이란 單純히 숨만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경험이 우리들의 人間的인 삶에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어떤 새로운 經驗이 單純히 하나의 經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삶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갖도록 해서 올바르게 智慧로운 삶을 살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冊속에서 나오는 經驗은 間接적으로 經驗하지만 그것은 실제의 經驗 못지않게 우리에게 크나큰 影響을 주고 꿈을 심어 주기 때문이다.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고 언제 冊읽는 시간 있어야지 하고 辨明에 앞서 하루 세끼 식사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冊을 읽기에 앞장서 후학들에게 책속에 푸른꿈이 있음을 스스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實踐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人生七十而 古來稀라는데

金 在 哲

옛말에 '일흔살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그래서 일흔이 되면 오래 살았다고 자손들이 축하의 宴을 베풀기도 했던 것이다.

장수(長壽)하는 것을 福이라하고 무병장수(無病長壽)를 기원(祈願)하는 것이 우리의 世俗人心이라 하겠다.

요사이의 의학의술(醫學醫術)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스웨덴의 경우 녀 80.8才 日本은 녀 81.6세 우리나라도 녀 75.7才을 넘게 사는 것이 보통이다.

친구들이 모이면 '옛날같으면 고려장(高麗葬)감인데 ...', 하고 농담을 걸기도 한다.

내 나이 70이 넘고보니 오래 살았다는 것에 대하여 소스라쳐 놀래기도 하고 '내가 벌써 언제 어떻게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지나온 人生 歷程(歷程)을 더듬어 보기도 한다.

나의 先親은 74세까지 살았으니 나도 그만치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先親께서는 기골(氣骨)이 장대하여 장수하셨지만 나는 어렸을때부터 잔병치레를 많이 했고 병줄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그렇게는 살수 없을 것이라고 체념했다가도 母親이 98에 別世하였으므로 母系를 닮았으면 툴히 90은 넘을수도 있을것이라고 자위(自慰)하기도 한다.

나는 오래 살려고 하지 않는다. 또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만치 산것도 神의 加호와 天惠(天惠)의 덕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팡이 짚고 허리는 꾸부정하고 걸음걸이는 비척 비척 ... 그것은 너무도 측은하고 안타까운 장면이다. 車속에서 '할아버지 앉으세요'하고 자리양보를 받으면 고맙기도 하지만 늙은이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과히 기분이 좋지않다. 茶房에 가도 옛날같으면 예쁜 아가씨들이 옆에 앉아 회회덕거리고 대화도 나누는 기쁨도 있었지만 지금은 늙은이 냄새가 나는지 본체만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한손에 가시들고 또 한손에 막대들고 늙는길 가시로 막고 오는 白髮 막대로 치려하였더니 白髮이 제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조선조 우탁(禹倬)의 時調가 생각한다.

회상추억(懷想追憶)은 아름다운것,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도 허무(虛無)한 일이다. 人

生은 유한(有限)이라는 天命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내친구 ○는 50에 갔고 ○는 60에 갔다. 내 초등학교 동창은 80名中 다 가고 不過 10余名밖에 남지않았다. 6.25를 겪고 병들어 죽고 모두가 험악한 世上을 살다가 갔다.

그리고보면 나는 몇굽을 더 산셈이다. 일찌기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에게 未安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파란만장(波瀾萬丈)한 一生이었다. 6.25때 길을 가다가, 썩색이 비행기의 기총소사(機銃掃射)를 받았을때도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살아났고, 病中에 국민방위군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영하 14℃의 혹한 속에서 다 '죽을 것이다'하고 예측 했다지만 살아 돌아온 '나'였다.

'나는 谷城郡 梧谷面 寢谷里 出生 김재철입니다.' 어떤 모임에 나가던지 자기소개를 하려면 의기양양하게 떠버린다. '너는 얼머나 山中이면 谷字가 세개나 들어간 곳에서 태어났느냐?'하고 弄을 걸어오면 서슴없이 '山中의 山中'이라고 대답해 좌중(座中)을 웃기기도 했다.

그래도 차츰차츰 기어나와서 首都서울의 校長까지 지냈으니 어떤이는 '개천에서 용났어!'하고 놀려 오기도 한다.

두달 모자란 五十個星霜을 교직에 몸담고 그것을 天職으로 알고 살아온 나에겐 미련(未練)도 후회도 없다. 모아놓은 것도 자식들에게 물려줄만한 유산(遺産)도 없다. 그야 말로 無所有가 所有인 것이다.

더구나 이곳 경기도 시흥이라는 시골로 낙향(落鄉)하고 부터는 인적도 끊겨 벗이라고는 登山길에 새소리 뿐이다.

「나무도 병이드니 亭子라고 설이 없다.

호화히 섰을제는 올이같이 다 쉬더니

있지고 가지젓은 후니 새도 아니오더라」

정철의 시조가 또 생각난다.

6男妹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두고 늙은이 부부만 淸風明月따라 草野에 묻혀 사니 죄책감도 들지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孔子님께서서는 '七十而 從心所欲 不踰矩'(일흔이 되어서는 내가 하고자하는대로 하여도 하나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라 했다.

聖人の 境地에 도달한 도학자의 말씀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내 本業인지라 서예학원(書藝學院)을 벌여보았으나 까다로운 규

제때문에 할 수 없이 건어치우고 冊床, 벼루 一切을 후배 某학교에 기증해 버렸다. 다행히 山本에 살때 30余名の 서도(書道)후진을 양성해 낸것은 정년(停年)후의 성과라고나 할까?

여기 아파트는 僻地인지라 하루하루 生計에 바쁘다보니 붓을 들고 글씨공부하겠다는 한가로운 사람은 없다. 水準낮은 農村이기 때문이다.

놀고 먹자니 하루하루가 답답하다. 무슨일이건 꿈틀거리고 싶지만 마음뿐이지 氣力이 쇠진(衰盡)하여 활동할 여력이 없다.

生也一片浮雲起요

死也一片浮雲滅이라(사람이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은 한조각 구름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어떤 佛家의 말을 되뇌어 보다.

■ 詩

강 동 식

(수서전화국 기술부장.)

<5 편>

아리랑 타령

(副題 : 신 아 리 랑)

(長 詩)

임은 무슨 일로
가을건이 끝내놓고
동구밖 개울건너
휘적휘적 떠났을까....

호롱불이 창연스레 흔들리는 밤
방망이 질을 해야지
다림질도 정성들여
녹두빛 본바탕에
빨간색 깃을 붙여
그리도 고운
숨이불을 지어야지

긴긴 동지선달, 창호문을 스미듯이
스르르 사뿐, 스르르 사뿐
대추나무 잎새같은 흰눈송이 내리면
행여 임이실까 임따른 그림자까
밤하늘엔 별일텐데
별빛일까, 내리는 눈빛일까

가시리라 어렵하던 임은 떠났어도
문풍지 가실가실 바람따라 세월가니
기다리던 봄이 어느새 찾아들어

따사한 봄별들이 안마당에 가득차네

북풍이 왕-왕 스치고 갈땀
보스스 보스스 투덜거리던
산죽(山竹)들이 에워싼 윗동네 우물가에
떠들석한 말소리들
옛장수 가윗소리
가시내 머슴아들 웃음소리 들리네

동산밭 일구러
어서 어서 가야겠네
봄보리 돌아난 논배미 건너
고구마순도 심고 감자도 심는
산비탈 밭뽕기 황토밭으로
훨씬 커버린 머슴애를 뒷세우고
곱고도 부드러운 밭이랑을 만들어야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동구밖에 흐르는 개울물 따라
봄별들이 반짝이며 노래를 하고
물오른 개울가 버드나무 가지에도
하늘하늘 아기있들 고사리춤 추고
들리는 통소소리 춘정이 솟네

한나절이 지났는가
 쇠스랑 손에 쥐고 흙두덩을 다듬는
 송알송알 땀흘리는 머슴애를 뒤로두고
 사랑채 시부모 점심걱정에
 사립문 살짝열어 집안살피니
 매달린 닭집에서 구굴 구굴 구굴
 암탉 두마리가 알을 품었네
 텃마루에 성큼올라 닭꽂지 슬적이니
 놀란 암탉이
 푸드덩 푸드덩 날아가네

풀숨같은 닭집
 텃빈 공간에는
 알 하나가 달랑
 저쪽에도 더큰 알하나 달랑
 하나는 연두빛
 하나는 황매빛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봄보리가 돌아난 논배미 건너
 산비탈 황토밭 발이랑에서
 송알송알 땀흘리며 흙두덩을 다듬는
 훨씬 커버린 머슴애에게
 요런 달걀 하나쯤은 쥐야겠네

어미닭 온기가 아직도 배었는가
 달걀하나 품속에 살풋 넣고
 뺨걸음 재촉하며 산에 오르니

곱고도 부드러운 발이랑들이
 봄내음 짓어들어 한껏 부풀었네
 품속 달걀 한 개 꺼내주고
 아낙네의 손길은 흔들리는데
 머슴애는 알을 보고 얼굴을 보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떠나는 너는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나네

■ 아리랑 타령 詩作所感

우리는 언제나 민족적 정서의 뿌리가 되는
 옛 아리랑 타령의 詩歌에 담겨진 恨과 情緒 그
 리고 두레 마을의 우리의 母情과 조금은 정염
 스런 우리의 옛것들로 부터 멀리 벗어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것
 이다.

우리는 山野가 先進의 江土가 되고 우리의
 通信網이 높은 수준의 현대적 통신망으로 성큼
 올라선다 해도 그때가 되면 우리의 옛 잔잔한
 얘기들과 정취들이 봄푸른 언덕에 돌아나는 새
 싹들모양 다시금 우리들 안마당을 채워줄 것으
 로 믿는다.

우리들의 소리, 우리들의 말, 우리의 영상들
 이 先進 通信網을 통해서 흐르고 連結되어 우
 리의 가슴을 적셔 주게 될 때 삭막했던 우리의
 情緒는 다시 물을 머금은 버들잎처럼 나부끼게

될 것이다.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이 험거운 한 고비와 한 세대를 지혜롭게 극복한 후 우리는 다시금 옛모습으로 돌아와 거울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변해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지만 우리의 근본인 뿌리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될 것이다.

나의 옛동네(磊竹里)

죽림으로 둘러싸인
들담집 우리 동네
절레꽃 향기, 흙냄새 물씬대는
초가집들의 마루청 위에
오롯이 둘러앉아
그리운 마음들이 파랑새 되어
청아한 하늘, 드높은 곳을 향하여
멀리멀리 사랑노래 띄우면
살며시 내려앉은
하얀 뭉게구름 따라
떠오르는 태양마저
방실방실 연꽃처럼 피어나던
나의 옛동네야……
노 - 란 지붕위로
감나무꽃 향기가 피어오르고
놀란 산비둘기가 대숲 속으로 날아가는
내 모 - 든 소망이 잠들고 있었던
그리운 고향, 그곳으로 가고싶네

고향

고향이란
살풀이 춤이런가
그리움으로 찾아와서
작은 눈물방울이 되어
나를 일으켜 세우지요

고향은 명상의 땅
눈을 지긋이 감으면
자꾸만 떠오르는
모 - 든 생각의 뿌리가 되는
기름진 옥토와 같지요

直指人心

어스름 새벽녘에
흰하게 떠오른 달을
무심코 바라보며
고요히 명상에 들어가서
깊은 생각에 젖든중에
불현듯이 스치는 한 생각에
검지 바로세워 달을 가리키니
달님은 어데가고
손가락만 보이는구나
답답한 심정이 자꾸만 요동하는
아 ! 이것이 直指人心이로세
마음밭에 티끌 하나라도
마음문을 가리우면
이세상 넓다 한들
무슨 기쁨 있을까....

한톨의 밀알

작은 돌이 듬성듬성 묻힌
엇그제 일구어논 밭이랑에
노란 밀알로 뿌려져
파란 하늘 속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옥수수 나무가 될
그런 새싹으로 다시 돌아나고 싶다.

한없는 인욕(忍慾)의 세월 속에
비틀거리며 살아온 世波가
굵은 주름으로 이마에 남는
나의 나이테는 60줄
그리움들이 슬픔으로 남아버린 흔적

까만 밤을 뒤척이며
열병으로 신음하던 세월마저도
따뜻한 낙엽으로 발뿌리에 떨어지는
나의 가슴에 작은 파도는 일고...

가랑잎 차곡차곡 뒤덮인
산허리 풀섬에 홀로 앉아
멀리 푸른 하늘 바라보면
내일을 꿈꾸는 나그네가 된다.

가난한 시인은

대포 한잔 값 나누어
빈 호주머니 채워
흰 책만 파는 서점에 들러
삼천원 짜리
시집 한 권을 샀다
시집 한 권에
마음이
넓어진 시인은
대포 값 아끼던
술집에 들어가
호기 있게 삼천 일원어치
술을 퍼 마시고
내일은 모레는
대포값 나누어 사는 가난뱅이다

간 호 사

숨 보다 더 하얗고
봄 햇살 보다 더 따스하고
새털 보다 더 보드라운
포대기가
몽게구름 같이 피어 올라
하늘을 이고
땅을 덮게 깔아져 있어도
아기에게는
엄마 품 보다 더
포근한 곳은 없다

세파에 시달려
찌든 얼굴에
속 살 다 비치는
옷 걸치고
스므결은 더 꿇맷을
포대기에 쌓아
아기를 보듬었어도
잠든 얼굴
내려다 보는
어머니의 얼굴 보다
더
성스러운 얼굴은 없다.

깜빡이는 눈동자에 떠는

눈썹 하나 하나
머리카락 한올 한올
하루 해가 모자라
스물 다섯 시간을 보살피 줘도
모자랄 모정을
가슴으로 쓰다듬은
엄마의 출근 길은
그러나 무겁지만은 않다

출근한
책상머리에
기도하는
나의 일생을 순결하게 살며
내 직무에 충실하고
남에게 해로운 일은
무엇하나 하지 않겠으며
해로운 약인줄 알고는
자기에게나 남에게 쓰지 않고
간호사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력을 다 하고
성심으로 의료인의 일을 협조하며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한
일과를 뒤돌아보며

그래서
오늘밤

귀여운 내 아기
볼을 비비며
세상의 어떤 사악함
들어 올
틈 없이
맑은 아기의 눈동자에
천사 보다 더 밝은
웃음 웃는
아가의 입술에
부끄러움 없이
퍼부을 수 있는
충만한 모정의 삶에

꽃들은 활짝 핀 얼굴로
새들은 지저귀의 노래로
나비는 춤의 나래로
겨울은 함박눈으로
차곡 차곡
축복을 쌓아줘야 하지 않겠는가

가뭄

하늘을 훨훨 날던
백로 한 마리가
사뿐이 내려 와
눈에 앉는다

눈은 거북이 등
먹이를 찾음인가
긴 모가지를 빼
두리번 거리더니
홀쩍 날아가 버린다
발가락이 뜨거워서였을까
그 긴 다리 빠질까 두려워서였을까.

지켜보는 농심은
백로가 앉았던 자리에
오줌 한 방울이라도 흘렸을까
확인 해보고 싶다

몰어 볼 수도 할 수도 없는 인사

마음들이 배꽃 같이 깨끗하고
사람사는 길을
닦고 지키는 데는
온 누리의 귀감으로
추앙 받는 우리이기에

남을 헐뜯고
비웃는 일보다
남의 잘한 일만 밝히고
남이 잘못되는 일을
기뻐하기 보다
나보다 남이
더 잘되는 일에
마음들을 쓰고
나의 편안함보다
이웃의 편안함을
기꺼이 여기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이웃의 잘 되는 일에
기쁨들을 나누고
어제의 원수도 길에서 만나면
서로 눈 흘기며
지나가기보다

덕담을 서로 나누며 비껴가는
너그러운 마음들이 한결 같아
인사말도 그만큼 자상하고 많다

건강을 묻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인사
화목하게 사는 것을 묻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인사
절후가 잘 되었는가를 묻고
절후가 잘 되길 바라는 인사
그 미침이 축생에까지 이르러
소가 여물을 잘 먹는가를 묻고
잘 먹기를 바라는 인사
닭이 달걀을 잘 낳는가를 묻고
잘 낳기를 바라는 인사
생활 하나 하나
머리카락 한 올 빠짐없이
염려스레 두루
안부를 묻는 인사가
우리들의 고운 마음의
맥을 이루어 왔는데
요즈음 우리에게
물어 볼 수도
할 수도 없는
인사가 있어
우리의 맑은 마음에
우리의 밝고 명랑한 삶에
어두움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우리의 보람 찬 삶에
무거운 멩에를 짊어 지우는

그 계절만 되면
아니 모든 계절에
온 가족이
온 마을 사람들이
온 고을 사람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복새들을 떨고
누구나
그 복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벗어나야 한다고
저마다 한마디씩
목청이 터져라 외치면서도
눈에 빠져 허우적 거리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 듯
온 나라를
근심의 바다로 뒤덮고
맑은 하늘에
괜히 침을 뱉고 싶고
맑은 하늘을
진흙발로 짓밟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안겨주는
물어보고 싶어도
그 결과에 겁이 나고

이웃에게 눈치가 보이고
괜스레 죄지은 것 같이
주눅들이 들어
우리들의 따뜻한 인정에
금이 가게 하고
우리들의 힘찬 활기를
매마르게 하고
이웃에게
지은 죄 없이
두려움을 안겨주는
물어 볼 수도
할 수도 없는 인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댝 아들 이번 대학에 합격 했답디까”
“댝의 아들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 시간 그 노래는

아버지 어머니가 버린 쓰레기
자기의 아들 딸들이
줍는 걸 보면서도
아들 딸들이 버린 쓰레기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줍는 걸 보면서도
그래서 있어서도 안될 날
그래도 있어야 한다면
좀 더 유용하게
쓰여야 할 날인
자연 정화의 날에
전국토 청결운동의 날에
수업시간을 빼앗기고
농번기에 농촌의 바쁜
일손 빼앗기는데도
코 앞 기분에
너도 나도 경쟁하 듯
쓰고나서 버리고
먹고 나서 버리고
마시고 나서 버리고
기분 좋다고 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버리고
이웃에 아무런 부끄럼 없이
내 나라 내 강토
아끼려는 마음
조금도 없이

버리고 버리고 버리기만 하는데

오후 다섯 시 이십 분 전

아침 햇살보다

더 신선하게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저녁 노을보다

더 고운 심성을

우리 마음에 지니게

내 고장 아끼며

사랑 하자는 노래

“노령의 큰 산줄기 타고 내려와...”

그 노래와 함께

다가온 그대들은

쓰고 나서 버린 곳에 있는

더러움을 쓸어내

깨끗한 거리를 되돌려 주고

먹고 나서 버린 곳에서

나는 냄새를

연꽃 향기로 몰고 와서

맑은 공기로 가득 채워주고

마시고 나서 버린 곳에

피어 있는 썩은 곳을

정화수로 흘려

내려와 씻어주고

그래도 남은 것들을

참빗으로 써가래 가려내 듯

가려내 주는

우리가 잃어버린

이웃에게 부끄러워 하는 마음 찾아주고

내 나라 내 강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찾아주고

아름다운 우리 강토 가꾸는데

무뎠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는

범종 소리다

천둥 소리다

선남들의 현신이다

※ 일과 시간이 끝날 무렵 우리 읍 거리에 나
타나는 청소차를 보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대지에 싹을 돋아주며
보라빛 꿈을 심어주는
봄 날 아지랑이도
날아 가버린
희망의 현기증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대지 위에 꽃을 피우며
청량하게 들리는
매미의 울음소리도
죽음을 예고하는 장송곡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대지에 가득 담은
오곡의 풍요로 이룬
가을날의 황금 물결은
추수뒤의 황량함을 안겨줄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누리의 추악함을
하얗게 덮어주는
겨울날의 함박눈도
시궁창을 흐르는 더러운 물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없는 가슴은
황량한 별판에 텅구는
낙엽의 쓸쓸함 뿐인
폐허가 된 마음일 뿐입니다

人生流轉

물새야 날아보자 세상만사 잊으려다
산 돌고 물길 따라 잠긴 회포 풀고파도
어디서 개짖는 소리 승냥이를 쫓는구나.

인생길 有限한데 긴긴 밤을 태워가니
深山에 가람 있고 苦海衆生 합장한다
꿈길이 분명타하면 풀리리라 영킨세상.

거미는 줄을 치고 望樓에서 태평쿠나
마음은 콩과 같고 愁心속에 날 저무는데
매미야 울어라, 울어 一場春夢 너로구나.

뉘라서 情이 겨운 백년지객 벗하랴만
산바람 강바람에 새와 짐승 風流하니
해와 달 돌고 돈다네 구비구비 인생길에.

옆치락 뒤치락에 인생유전 얼마런가
안개속 천야만야 불꽃튀는 열기속에
쓴 입맛 짹짹 다시며 도리질을 쳤구나.

황 혼 길

향기야 있고 없고
夕陽酒에 취해본다

아마도 깨어나면
아원 몸이 허전컨만

世波에 타는 마음을
술잔 들고 달래본다.

취한 몸 이만하면
부러울 것 무어랴만

노을이 붉었으니
황혼길이 가파른가

기우는 저 달을 보며
의기양양 흥금 턴다.

가을비

포근한 봄날이야 비내리고 생생타만
가을비 오지 마라 쓸쓸한 밤 적막하다
어즈버 좋은날 다 가고 저 달 보며 잠 못 드
네.

황금색 옷을 입고 고개 숙인 계절이라
접동새 우는 골에 하늘 높고 푸르건만
떠나간 임이 그리워 두렁여인 기도한다.

조타수 없는 몸이 밤이슬에 젖어드니
창파에 돛배인양 남은 風前인데
구름긴 캄캄한 밤은 마음마저 무거워라.

뜨겁게 깨어나는 그리움도 제멋이라
가슴속 일렁이는 불덩어리 뉘 알랴만
간절한 마음 하나가 달빛따라 사위어 간
다.

일월 장구

청산은 언제 봐도
태평연화 임천인데

꽃필 때 꽃 피우고
禽獸 뛰며 새가 나니

수평선 지평선마다
아롱다롱 황홀이여.

오늘도 日出峰에
해가 솟고 滿月이라

悠久한 강산마다
춘하추동 奧妙롭고

온누리 수억만 생령
빛 하나로 엮어간다.

가시 없는 마음

잘 생긴 바다구나 도량 크고 넉넉더라
억만년 세월 몰라 푸른 빛이 양양하고
풍만한 자연의 노래 천진난만 가락이여.

연단한 목소리는 격조 높고 장엄구나
파도친 풍광속에 해와 달님 춤을 추니
어적부는 노래하고 갈매기도 따라한다.

뿌리채 뽑아내고 감추면서 드러내니
아우성 저리 곱게 후려치고 철썩여도
自我에 받친 熱情이 가시 없는 맘이어라.

歸鄉길

인생길 고개고개 손금에다 그었는가
재 넘고 가노라니 쉬엄쉬엄 하다마는
걷는 길 길고 짧구나 人命在天 뉘라알라

때때로 메인 몸이 春心인양 양양해도
길동무 두고 두고 멀리 멀리 가노라니
불러도 대답 없구나 돌아가는 고향길.

소망

모두가 부귀영화 소망하니 꿈이로다
화려한 그리움은 어제보다 오늘인데
어쩐지 분주한 걸음 곡예하고 격조였네.

꿈을 깬 나그네는 석양 돌아 저 달 보니
푸른 정 붉은 꿈이 바람따라 날았는가
이제사 생각나노니 임천한홍 벗하리라.

산천은 예와 같고 인생길은 流水로다
가버린 靑雲의 꿈 마음만은 청청하니
좋은날 궂은날에도 安貧樂道 좋아라.

豊漁祭

수평선 천리에도 만리에도 가락있고
풍요의 띄벳놀이 꿈을 싣고 오고가니
끝없는 無慾의 和音 철썩이는 풍광이여

뭉개고 부숴지며 咆哮하는 彼岸의 녀
억만년 세월에도 里程表가 청청하여
하늘끝 임 찾아가는데 달님마저 기우는가

한바다 가뭄 몰라 불씨 하나 피지 않고
얼마나 세월 가야 탐스러운 꽃이 피랴
수놓은 물찬 갈매기 정이 든양 자장가네.

太古의 은혜롭이 몰아치는 물보라여
만국기 펄럭이고 洞祭술이 거나할제
벳놀이 구성지도다 滿船 띄운 豊漁祭여.

장엄한 수궁노래 몸살내는 풍상인데
끝 모를 천상만집 갯냄새가 짹짹하고
歸港의 뱃고동 소리 새벽빛이 찬란하다.

그대 눈물을 보았네

사랑하는 님아.
처참해진 내 마음에도
잊혀지지 않는 너의 모습
머릿속에 굳게 닫힌 마음 속 깊이
따사롭게 스치는 바람
사라져간 가을 풍경 속에
슬픈 빛깔로 남아
그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로 흐르네

말 해 주 오

말해주오. 잔물결 같은 목소리로
기쁨을 주는 아늑한 소리
그대 따스한 가슴으로 말해주오.
그대에게 언제나 내가 있다는 것을
감미로운 미소로 속삭여주오
그러나 저는 뽐내지 않을게요.
부드러운 용단같이 그것을 감싸주고
그대 마음 속에 있을게요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을게요.

밤 안 개

밤안개 속을 거니는 그대여
신기루 같은 안개속을 거니는 그대여
외롭고 쓸쓸한 안개 속
그댄 혼자서 가는구나.

나의 삶이 밝던 그 때에는
빛도 가득했건만
이제 여기에 안개 내리니
회피할 수 없는 현실
정영 현명할 수 없구나.

안개 속을 거니는 초라한 그대 모습
산다는 것은 결코 외로운 인생.

변산 해변에서 우리는

햇빛 반짝이는 변산해변
9월에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밀려오는 파도
파도는 우리를 점점 뒤로 밀면서
다가왔다.

우리는 발자욱을 남기면서
뒤로뒤로 밀려갔다.
파도는 우리의 발자욱을 지우면서
따라오고.

우리는 파도 저너머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무어라고 대화를 하였지만
알 수 없는 대화였어.
변산 해변에서 우리는
모래위를 걸었다.



가을 바다

이 미 라

(곡성고 3년)

하늘과 바다가 부드러운 물빛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저만큼 군데군데 누워있는 섬들이
하늘과 바다를 갈라 놓는다.

갈라진 바다는
성난 파도소리, 우울한 뱃고동 소리를
끄덕이고 다독여가며
작은 생명의 빛이 되어
한편의 시가 되듯
그렇게 어우러지고

잔잔한 바람소리에도 고 얽은 귀를
맑게 비우고 하늘 소리를 듣는다.

철따라 바람이 불고가는
소란한 마음길 위에
스스로 펴는 그 폭넓은 수렁선으로
떠나가는 철새들의 울음까지 포옹하며
모래알보다 많은 사연을
살갓이 감춘 채 조용히 흐르고 있다.

도시를 떠난 나그네의 가슴에
한쪽의 수채화로 남긴 채 ...



해지는 언덕에서

박 양 정

(곡성고 3년)

누가
건네어준 뜨거운 마음있어
하늘은
저리도 길게 핏빛일까
시대를 줄지어
역사를 줄지어
조국 사랑만을 외치던
푸르른 소나무여
산골에 용감히 넣어놓고 간
붉은 이름이여

설핏 잠깐
선홍빛 심장하나
길게 늘어선 노을바다 한 칸
그대 곁에
감히 묻고 가오니
그대 밝아 가던 기약없는 세월속에
붉은 피 흐르게 하소서

어느덧 기력이 다하고
내 손과 발이
이 세상에서 더이상
필요없어 짐으로
다시 이 곳에 오를 때
그대 홀로 홀리고 간
눈물의 역사 대신
모두가 하나되어 이룩한
정직한 역사
그대곁에 당당히 뿌리오리다.

그때까지
두고 두고 노을빛 청춘
지니게 하여 주소서 ……

가정윤리가 확립된 그날이 오면……

조 형 문

(곡성고 1년)

예전엔 어김없이 아버지의 강요로 뉴스를 보았다. 항상 보기 싫었던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다른 채널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진다.

이런 감정이 부모님에 대한 반항으로 이어지는 지도 모르겠다. 항상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사고에 화가 나고, '왜 내가 이런 명령만 받아야 하는가?' 하는 부모님에 대한 불신감이 싹튼다. 담배 심부름을 시키시더라도 하면 나는 언제나 불평을 늘어놓는다.

아버지는 불평불만인 나에게

“이녀석 아버지가 말하는데 어디서 반항이냐”란 식으로 나를 나무라신다.

중학교 때까지 이런 아버지가 정말 싫었다. 이 가정이 혼자 것인것 마냥 주무르시고, 강요만 하시는 아버지 사춘기 시절 이런 아버지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이렇게 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날 어느 해에서도 보기도 못한 폭우가 내렸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막화를 내고 집을 나와 버렸다. 그날밤만은 갑갑했던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폭우는 그칠줄 몰랐고 나는 비를 맞으며 연신 울음을 터트렸다. 그날 저녁 감기에 걸리고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다. 아픈 머리는 쉽게 나올 줄 몰랐고 킁킁거리던 내 모습이 비참하게만 느껴졌다. 그렇지만 자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물수건과, 거칠지만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이었다.

그때서야 비로서 강해보이기만 하던 아버지에게서 사랑이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고등학생인 지금 나는 뉴스를 보았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아버지가 딸을 때려죽인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유는 대소변을 못가린다는 것이다. 어떻게 자기 딸을 죽일 수가 있을까?

예전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빨리 물

려 받기 위해서란다.

이런,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을 가정윤리가 확립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부모는 자식이 어려서부터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그 자식은 부모를 사랑으로써 섬겨야 한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고 부모와 자식간에 싸움이 있으면 그건 분명 가정윤리가 확립되지 않아서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화목한 가정에 근본은 분명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에 가정윤리가 확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온 세상의 모든 가정에 가정윤리가 확립된다면 우리가 소망해온 바람직한 세상이 될 것이다.

가정윤리가 확립되는 그날이 오면, 서로의 불신은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온다면

서 봉 효

(곡성고 2년)

“현재 우리 나라는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휴, 또 저 얘기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정말 이런 얘기가 지긋지긋 하다. 초등학교 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대한 교육은 거의 비슷하다. 그저 환경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몇마디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 하지는 않는다. 11년간이나 학교에서 충실하게 환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을까?

“그날이 온다면…….”

썩어버린 바다를 보며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제 이런 바람은 공해에 찌든 이 사회 어느곳에서든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옛날같이 아름다운 자연을 되찾는 날 바로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난 어릴때 여천이라는 곳에 살았다. 지금은 공해로 찌들어 있지만 옛날에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 대문을 열면 언제나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날 반겨주었고, 학교가 끝난후 친구들과 아무 꺼리낌 없이 바다에 뛰어들던 정말로 멋진 곳이었다. 하지만 공장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렇게 아름답던 내 고향 여천은 점점 변해갔다. 바닷 바람은 악취를 품고

우리를 휘감았고, 푸른빛 나던 바다는 더러운 시궁창으로 변해간 것이었다.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는 거의 기형어였고 나무들은 하나씩 그 푸르름을 잃어만 갔다.

사람들은 정들었던 고향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했고, 공장에서 내뿜던 매연을 바라보며 한숨 지으시던 부모님은 결국 나와 동생을 데리고 이곳, 곡성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처음 곡성을 보며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지만 한편으로 옛날의 내 고향 같은 느낌에 우울한 기분도 들었다. 이곳도 여천처럼 공해에 찌들어 병들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든지 현재처럼 공해에 찌들어 있는 세상에서는 살기 싫어한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옛날같이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바라고만 있다면 아름다운 환경이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와 줄까? 두번 다시는 내 고향 여천같은 도시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난 폐수와 공해 물질로 오염되었는 환경을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썩어버린 바다를 보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온다.

“그날이 온다면…….”

온전한 한반도를 기대하며

김 정 임
(석곡고 2년)

92년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현정부를 문민정부라 불렀다. 이러한 문민정부 아래 국가적 차원의 통일방안이 연거푸 거론되어 왔으나 반복적으로 수정되는 미봉책에 그치고, 최근 무장 공비 출현 사건으로 남북한 간의 정계가 다시금 어두운 빛을 띠어가고 있다. 모두가 염원해 마지않는 통일,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런지 암담하기만 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짚어볼게 있다. 양국간의 대담 및 교류가 결렬되고 해서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마저 시들해져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들 스스로가 통일의 문제를 정부 차원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우리의 청소년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게 된 것일까? 민족간의 이질감이 심화된 것도 주 원인

중 하나겠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무감각해져 버린데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간의 팽배해진 이질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럴려면 갈려진 땅의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 전망대'라는 방송 프로그램명(名)조차 우리들의 기억속에서는 희미해져 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주소이다. 북한의 풍습과 주민들의 실생활을 알리는 방송 프로그램 확대와 북한에의 애정어린 관심의 고취로 통일의 날을 앞당겨 나가도록 해야겠다.

둘째로는 핵심을 비켜간 옛 반공 교육의 검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6.25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전국적으로 반공 교육의 거센 물결이 일어났다. 그 물결의 여파가 얼마나 컸었는지는 초등학교에 가면 빼놓지 않고 볼수 있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

친 이승복의 동상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물론 극단적인 공산주의의 이념은 우리가 배척해야 하지만 그 이념에 희생된 북한 주민까지 질타의 대상으로 삼게 만든 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과오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실현의 밑바탕이 되는 우리들 마음과 정신의 재정립이다. 분단 이래 수십년이 흐르면서 어느덧 우리는 은연중에 통일의 절실함을 망각해 가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통일대책 방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에 통일에의 염원이 사라지고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바람에 꺾인

돌처럼 우리들의 염원이 시들해져 버린 않았는지 확인해 볼 때이다.

요즈음에 들어서서 복지국가 이상국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양립한 적벽의 깃발이 영원히 펄럭이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로의 발돋움은 제자리 걸음이 되고 말 것이다. 낙엽이 흔적도 없이 떨어져 내리는 이 가을날, 머리 위 푸른 하늘을 북한의 여학생과 함께 나란히 서서 올려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램해 본다. 아니 더 이상은 북한이나 남한이라는 말로 한반도가 갈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램해 본다. 아, 아스라히 멀기만한 그 날은, 그래도 기어코 오고야 말리라.

내 가슴의 큰 산

윤 정 자

(석곡고 2년)

지상의 모든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버린듯한 고요함에
전날의
소란스럽던 생명의 숨소리마저
사르라들어버린 미명
그 속을 조심스레 가르는
발자국 소리가 있다.
아버지…….

마루에 걸려
마당을 밝힌
희미한 전구불빛이
내 누운 방
내 이마에 부딪혀와
잔잔히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 놓는다.

“어저께 베타작 하더니
베타가 실러 가는갑다…….”
거칠게 기침을 토해 내시던
할머니의 한마디
그림자를 내 가슴에 찍어내며
조용히 방문열어
방안가득 새기운을 불러들인다.

베타 드문드문 박힌
빛 바랜 작은 모자에
한 손엔 불편하신 눈에 쓰실
거칠어진 썬글라스
웃으시며 아랫단추 채우시는
아버지께서
털털거리는 경운기에
시동을 거신다.

작은 마당 위에 박혀
멀뚱멀뚱하다 가물거려져가는
별빛이
골목길에 놓인 경운기 위
아버지의 썬글라스에
한 개, 두 개…….

아무도 가지않은
어둠쌓인 좁은 길을
초라하고 지쳐보이는
작은 어깨 편
나의 커다란 이가
먼저 밝혀감에
그 옆에 선 내 두손엔
새벽 기운이 모듬모듬
줘어져 온다.

낮익은 털털거림에
가슴속에 퍼져오는
아름다운 것들을 음미하며
올려다본 하늘은
어느새 아버지의 기세에 못이겨
한쪽 눈을 슬며시 치켜올린다.

세상길따라 그 몸 닳게
살아오신
내 희망되신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내 가슴에 큰 산을 지워주시며
누구보다 밝은 인생
토담길 여기저기에 뿌려나가신다.

새벽길

정 숙 진
(옥과고 2년)

아직
세상은 까만데
엄마의 아침은 시작된다.

행여
나 깰까,
조심히 방문 열고
수건 하나 들고 나가신다.

차갑게만 느껴지는
창살틈으로
엄마의 걸음은
바쁘시기만하다.

세상에 깨어 있는거라곤
엄마뿐일거라는
작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엄마의 걸음이 닿은 곳부터
깨이기 시작한다.

풀이 깨이고
이슬이 깨고,
나무가 깨이고
새가 깨인다.
그리고 아침이 깨인다.

엄마는
나를 못 깨우시고
새벽을 깨운다.
그 길을 깨운다.

새벽길

형 건 영
(곡성고 2년)

새벽에 잠깨면,
잠시 그대의 창문을 열어보라.

만약,
길고긴 그 새벽길 사이로
하얀 안개의 자취가 남아있다면,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지금
안개가 되어 그대의 창문가에
서성거리고 있겠거니, 생각하라.

아침이 다가온다.
어서,
그 안개의 자취가 사라지기 전에,
이슬이 되어 지워지기 전에,
길고 긴 그 새벽길을 따라,
함께, 걸어라.

단군 할아버지와 항아리

조 민 철

(곡성중 2년)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과 쑥과 마늘을 먹어 사람이 된 곰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주 총명하였다고 한다. 그가 성인이 되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흥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건국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나라이다.

단군 할아버지의 근본 이념인 흥익인간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왔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라도 정성을 다해 만드는 장인정신과 매사에 깊이 생각하는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정신들은 차츰 퇴색해 버리고 말았다.

요즘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좋은 우리 문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외국 문물을 마구 받아 들이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 항아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항아리는 무겁고 부피가 커서 보관하기 적당치 못하다. 하지만 항아

리는 흙으로 빚어 만들어서 음식 속에 있는 해로운 물질도 순화되어 이롭게 되고, 음식이 더 맛있어 진다. 또한 음식이 변하지 않아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항아리를 재쳐두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생활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이 삭막해져 가고 있다. 단군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세우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엮을 것이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사고에서 이웃도 결국은 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면 한층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군 할아버지의 정신을 본받아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름답고 귀중한 정신을 이어가자. 그리고 가끔씩은 단군 할아버지를 생각하여 우리에게 단군 할아버지와 같은 훌륭한 선조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단군 할아버지

최 유 론

(곡성중 1년)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이다.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좋은 한반도에 우리나라를 세우신 날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개천절의 의미가 오늘은 왠지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지금까지 개천절을 쉬는 날, 국기를 게양하는 날로만 여겨왔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내가 이렇게 우리 말을 쓰면서, 이 땅에서 편히 살 수 있게 해주신 단군 할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 곰을 사람으로 변화하게 해주고, 그 웅녀와 결혼해서 태어나셨다는 단군 할아버지, 솔직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신비하게 태어나신 단군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건국하셨다는 이야기는 너무 자랑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다.

잠시후, 텔레비전 각 방송사에서 사이렌 소리를 시작으로 개천절 경축식 행사를 중계해 주었다. 텔레비전에 비치는 마니산의 침성단이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났다. 그리고 그 주위로 비춰지는 마니산의 가을 풍경 또한 매우 멋있었다.

여러 정치가들과 사람들이 침성단에 모여 향을 피우고 개천절 행사를 거행

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추어졌다.

작년만 해도, 이렇게 성대히 치뤄지는 행사를 보면서,

‘이런 행사를 왜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왠지 이 경축식 행사가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에는 단군의 초상화가 모셔진 단군전이 비추어졌다. 단군 할아버지의 얼굴에 위엄있게 자란 수염이 참 멋있었고, 우리나라도 그 수염처럼 훌륭한 나라로 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축이 끝나고 난 엄마께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도 태극기 달아요.”

지금까지 귀찮게 여겨왔던 국기 게양이 오늘은 너무나 하고 싶었다. 또 소심하게 바라보았던 태극기가 오늘 따라 멋있게 보였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건국 이념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옛날에는 ‘금수강산’이라고 불리우던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환경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단군 할아버지때부터 나라를 지키며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를 우리는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것이다.

단군 할아버지와 우리 조국

박 은 미

(옥산중 2년)

너무 막연하기만 하다.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그 일을 이해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용맹스런 장군에서부터 하찮은 노비까지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지켜 온 이 나라 그 중에서 나는 단군 왕검을 꼽아보고 싶다. 우리의 시조라 불리우는 분 단군 왕검이라는 딱딱한 호칭보다는 단군 할아버지라 부르고 싶다.

어릴 적 따분함을 떨치기 위해 접어들었던 한 권의 책 단군 신화이다. 내용도 모른채 무작정 큰 소리로 읽어 나가지만 한 책을 다시 접어들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의 기초를 처음이라도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꿈이라는 동물이 100일 동안 쉼과 마늘만 먹고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 현실속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가능하지 않는 일이 연속되는 그 신화를 나는 믿고 싶다.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우리나라 역사는 시작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만년이라는 찬

란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내세운 건국 이념도 본받을 만하다. 모든 것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었다는 점 천한 사람들과지도 존중해 준 것이 마음에 들었다.

많은 전쟁과 억압을 받으면서도 단군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조상들의 지혜와 노력을 본받고 싶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북이 분단된 현실이다.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건국하셨을 때는 분단이라는 단어는 꿈에도 생각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남한도 통일을 위하여 온 국민이 매진해야 되겠고, 북한도 공비나 침투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은 당장에 거두고 무엇이 우리의 조국을 빛나게 하며 단군 할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길인지 빨리 깨우쳐야 할 것이다.

섬진강

오 지 혜
(삼기중 3년)

그 곳은
항상 내가 갖고 싶었던
보물 상자가 있었지
투명한 상자를 들여다 보면
꽃도 있고, 새도 있고
조그마한 내 꿈도 들어있었거든

그 곳은
항상 내가 만나고 싶었던
맑음의 친구가 있었지
돌을 던지면 동그란 웃음을 짓고
발을 담그면 간지럽혔던 친구
그 친구는 마음이 착해서
항상 깨끗했어

하지만
이젠 보물상자를 가질 수가 없어
들여다보면 깨진 병, 캔만 보이거든
친구도 이젠 만날 수 없게 되었어
그 깨끗한 얼굴도 검게 되었거든
이젠 찾아가도 웃어주지 않아
항상 울고 있어

“날 좀 도와줘”
“나 너무 아파”
강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오늘 밤 꿈에
난 푸르름을 가지고
그 곳을 찾아가야겠어
웃는 강의 모습이 빨리 보고 싶거든
내 꿈은 오직 저 강이 푸르게 웃는 것
뿐.

섬진강

김 수 영
(옥산중 3년)

가을 하늘보다 더 맑은 물줄기를 따라
은빛 고기떼가 있음이라…….

그것은
전라의 땅과 함께 숨쉬어온
전라인의 맑은 눈,

힘차게, 아니 무섭게
저 푸른 바다로 전진한다.
그것은,
새세계를 향한 무서운 전라인의
몸부림.

피비린내가 나는구나
그 맑은 물줄기에서…….
그 맑은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나 보다
노을빛으로 붉게 물든 그 강이
더욱 힘차게 바다로 전진한다.

흥겨운 농악 놀이

김 은 희

(삼기초 5년)

운동회날, 집을 나서는 나와 동생은 설레임으로 부풀었다. 난 이번 농악 놀이때, 뿡과리를 치므로 흥분이 되었다.

학교에 도착하니 만국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운동회를 더욱 실감케 하였다.

여러 경기가 펼쳐진 후 가장 중용한 농악 놀이가 시작되었다.

“깡깡…….”

상쇠가 치는 신호음이 울려 퍼졌다. 이어서 농악대가 각 악기를 연주 했다. 북소리, 뿡과리소리, 징소리 등이 어우러진 농악 놀이가 펼쳐졌다. 흥겨운 농악 소리에 난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소고를 치는 어린이들이 운동장 한가운데서 재주를 부렸다. 달팽이 모양을 만들며 빠져 나오는 모습은 참으로 멋있었다. 소고를 치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하지만

‘아니야,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더욱 힘을 내어 뿡과리를 쳤다. 구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치고 싶었다.

농악 놀이가 끝나고 운동회를 마쳤다. 몸은 피곤하고 마리도 아팠지만 내 마음은 흐뭇했다. 내년 운동회 때도 농악놀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변함없는 우정

김 은 희

(동계초 6년)

지난 10월 2일은 즐거운 운동회 날이었다. 내가 초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운동회이기 때문에 무척 기다렸다. 이번 운동회 때는 기어이 달리기에서 일등을 해야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연습 때마나 내 친구 수정이에게 떨어졌다. 그래도 운동회는 즐거운 날이다.

어젯밤 잠을 설치며 내일 비라도 오면 어쩌나 걱정도 했었다. 아침에 일어나 밥도 먹는등 마는등 하고 운동복을 차려입고 뛰어서 학교로 갔다. 나는 내가 제일 먼저 학교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벌써 와 운동장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도 하얀 백선위로 가볍게 달려 보았다. 어떻게 달리면 수정을 이기고 일등을 해 볼까 하고 말이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운동회 시작을 알리는 방송소리가 들렸다.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운동회 날이었는데 방송 소리가 들리자 내 가슴이 떨렸다. 그것은 또 수정이에게 달리기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났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침 준비 체조를 마치고 5학년 달리가 끝나고 우리 6학년 달리가 시작되었다.

1조, 2조, 3조, 4조 드디어 우리조 달리기 차례가 되었다. 수정이와 나는 나란히 섰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뛰기 시작했다. 결승점을 몇 미터 앞에 두고 수정이가 갑자기 다리를 절룩거리며 내 뒤로 떨어졌다. 그때 나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맨 앞에서 1등 테이프를 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등을 해 상을 타고 돌아 오면서 생각해 보았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이 잘 못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니 내마음나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나와 수정이는 둘도없는 친구이다. 이번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을 할 욕심 때문에 친구 수정이의 잘못됨을 기뻐 했지만 다른 일에는 나와 수정이의 우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수정아! 오늘 달리기 할때 내가 다리를 절룩거리고 뛰떨어질때 나는 속으로 기뻐했어 미안해. 그러나 너에 대한 나의 우정은 변함이 없어 오늘 저녁 잘 쉬어 내일 또 만나자.”

이렇게 나의 진심을 수정이에게 털어 놓았다. 우리에게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해서였다.

달리기

오 준 환

(오곡초 4년)

10월 29일, 가을 운동회가 무르익었을 무렵 아이들의 얼굴에는 긴장의 빛이 영역했다. 이유인 즉은, 달리기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4학년은 달리기조를 짜서 줄을 서서 달리기 출발선으로 갔다. 더욱이 이번 가을 운동회는 민민체육 대회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켜 보아서 더욱 긴장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운동회 때 동참한 압록초등학교 학생들이 달리기에는 참가하지 않아 경쟁자가 줄어들었다.

드디어 1조부터 차례로 출발했다. 1조, 2조가 출발하자 내가 속한 3조 출발하게 되었다. 초조했다. 호르라기 소리가 들렸다. 난 달리기를 잘 못하므로 안쪽을 차지하려 안감힘을 썼다.

“으, 조금만 조금만 더!”

난 이렇게 외치며 전력을 다했다. 그렇지만 힘이 딸리는 건 어쩔수 없었다.

골인 해 보니 뜻밖이었다. 4등과 간발의 차이로 3등을 한 것이다. 그러나 1, 2등만 뽑기에 나는 들어가 응원이나 하고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어쩐지, 만년4등인 내가 오랫동안 3등을 해서 횡재했다 했더니 그림의 떡일세 그라, 으이그 분해라.

달리기가 끝나고 나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바로 장애물 경기였다. 으히히 이번에는 꼭 2등안에 들어야지.

드디어 다른조 다 나가고 우리조의 차례, 내가 다리도 기똥차게 길고 점프력도 좋아서 이걸 유리 하단 말야, 게다가 우리조에서 제일 잘 달리는 아이가 부상으로 있으니 이걸 식은 죽 먹기지.

호르라기 소리와 함께 출발 엉? 근데 아까 4등한 아이가 나를 따라 잡는거다 어? 이게 그러면 아니 되는 건다.

내가 그래서 전력을 다해 뛰니 거의 따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4등한테 지고 말았다. 으이그, 속상해서 못살아, 정말 못살아.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번 가을 운동회 달리기는 성적도 저조하고 해서 정말 지옥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거운 아주 즐거웠던 나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아침 이슬

황 보 람

(곡성중앙초 4년)

새벽에 몰래 내려온
아침이슬

몇 분 세상구경 하지
못해 아쉬어하는 아침이슬

엄마따라 또로롱
아빠따라 또로롱

다음에 꼭 내려온다며
하늘 올리는 아침이슬

풀잎에 내려와
반짝이는 몸 뽐내고

둥글 넓적한 얼굴
예쁘다고 뽐내네

풀잎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 툭
툭! 하고 금방
깨져버리는 아침이슬

아침 이슬

신 소 현
(곡성서초 6년)

머나먼 동녘하늘
찬란하게 피어나는
해님의 손짓

싱그러운 아침
온 세상을 다스리던
작은 물방울 요정들

햇님의 간지러운 손짓으로
깨어나는
물방울 요정들,

세상이 깰까봐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게으름을 가지고
사라지는
물방울 요정들

내일의 아침을
지키기 위해
사라지는
아름다운 물방울 요정들

아침 이슬

황 인 정

(압록초 5년)

햇님이
콜콜
잠자는 시간

아침이슬
오늘도
풀잎에서 놀아요

풀잎
쫓르륵
미끄럼타고

풀잎 끝에서
대롱 대롱
그네타고

햇님이
동산 유로
사알짝
얼굴내면

아침이슬
나 몰래
숨어버렸나봐

가을 소풍

임 지 언
(곡성서초 4년)

오늘은 즐거운 소풍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입었다. 빠뜨린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밥을 먹었다.

어머니께서 정성껏 싸주신 김밥을 도시락에 넣었다. 소풍가방을 메고 도시락을 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교로 갔다. 교문 앞에 장사꾼들이 북적거렸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물건을 사려고 왁자지껄 모였다.

친구들을 만나 교실로 갔다. 선생님께서 소풍가서 지켜야할 점을 알려주셨다.

운동장에 줄을 서서 소풍장소로 걸어갔다. 도착했을 때는 힘이들었다. 간식을 먹으며 쉬었다.

친구들 엄마께서 많이 오셔서 부러웠다. 놀이하기 좋은 곳을 골라 놀이를 했다. 공책을 못 받았다. 기다리던 점심 시간이다. 점심을 다먹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가방을 메고 도림사 절로

향했다.

간판에 어려운 낱말이 있어 메모지에 적었다.

절에 들어갔다.

절에는 이상한게 많이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와 무각사 절에 함께가서 수천명의 부처님을 본 기억도 떠올랐다.

3명의 부처님을 보았다. 가운데 부처님이 진짜인 걸 알았다.

절구경을 다하고 보물찾기 장소로 향했다. 보물 찾기를 하였다.

보물은 찾기 힘들었다. 한번더 기회를 주셨는데 못찾았다. 그래도 공책을 주셨다.

집에가는 길로 향하였다. 집에 가는 길은 짧은 것 같은데 다리가 몹시 아팠다.

집에 도착을 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즐거운 가을소풍

박 종 구

(옥과초 3년)

오늘은 즐거운 가을 소풍날이다.

나는 다른날 보다 일찍 일어났다. 즐겁게 아침 체조를 하니 마음이 상쾌해졌다.

동생도 나 따라 아침 체조를 하였다. 엄마가 맛있는 김밥을 싸주니까 맛있는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소풍 가방을 메고 운동장에 가보니 모두 다 와 있었다.

드디어 옥과 미술관으로 출발 나는 씩씩하게 걸었다.

오랜만에 씩씩하게 걸으니 기분도 좋았다.

미술관에 도착하자 배가 고파서 과자를 조금 먹었다. 먹었더니 힘이 솟고 맛있었다. 교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엄마와 나 그리고 동생과 김밥을 먹으니 나들이 나온것 같았다.

점심을 먹고 선생님이 안오셔서 우리들끼리 게임을 하였다. 우리들끼리 게

임을 하니 더욱 더 재미있었다.

나는 씨름을 할때가 제일 재미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낙범이와 결승전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때는 정말 다리가 떨렸다. 아슬아슬하게 슬프게 그만 내가 지고 말았다.

나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나와 우승자에게 상품을 주었다.

나는 선생님이 고마웠다. 강강술래 게임, 수건 돌리기등의 게임을 하였다. 정말 재미있었다.

학교로 돌아갈 때에는 엄마차로 돌아갔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미있었다.

집에 돌아가 오늘 하루 생활 생각해 보니 정말 재미있는 하루 같았다.

즐거워 소풍

노 은 미
(삼기초 2년)

오늘은 즐거운 소풍날이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 늦게 갔다. 그래도 버스는 타고 갈 수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내가 불렀을 때는 선생님께서

“김건모보다 노래를 잘 불렀어요.”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기원이는 우리반 명가수라고 하셨다. 내친구 기원이는 커서 가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광주 패밀리랜드에 도착했다.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시끄러웠다. 놀이동산에 들어가자 깜짝놀랐다. 사람이 많고, 놀이기구도 많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로켓트를 탔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출발을 하자 로켓트가 오르락내리락 거렸다. 가슴이 떨렸지만 밑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하였다.

내려오자마자 너무 어지러워서 왔다 갔

다 하였다. 짝꿍놀이터로 갔다. 그곳에도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것이 많았다.

그래서 어질어질 하였다. 그래도 참고 타면서 내려왔다. 이제는 동물원으로 갔다. 제주부리는 돼지꼬리 원숭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토끼, 훨훨 날아다니는 독수리들이 있었다. 꼭 내가 동물원이 된 기분이었다. 나도 원숭이 처럼 재주도 부리고, 토끼처럼 뛰어다니고, 독수리처럼 날아보고 싶다. 정말 즐거운 날이었다.

단풍잎

김 상 엽
(곡성서초 2년)

단풍잎이 울긋 불긋 예쁘게 물들었네
언제 파란 옷에서 붉은 옷으로 갈아 입었을까

별같은 단풍잎,
공룡 발 같은 단풍잎
손바닥 같은 단풍잎
별, 공룡발, 손바닥 중에서 찍어 만든걸까?
단풍잎은 닳기 선수다.

단풍잎

정 미 경
(곡성중앙초 3년)

단풍나무 위에서
또르르 단풍잎 1장
떨어졌어요

내 머리위를 지나쳐
어디로 가나?

산으로 가나?
바다로 가나?

단풍잎은
알겠지요

단풍잎을 따라간
나의 마음은
산과 바다가
그려져 있어요

한참간 단풍잎은
또르르 내려 앉았어요

재가 미워서 그러나?
쉬고 싶어서 그러나?

단풍잎

전 치 상

(곡성서초 1년)

우리 아기

손같이 작은

단풍잎

빨강계 노랑계

웃을 입고

우리들을

반겨주지요

안녕, 친구야!

밝은 웃음 띄며

손짓하지요

親戚關係와 系寸法(친척 관계와 계촌법)

親族(친족)과 外戚(외척)과 內戚(내척)을 통합하여 친척이라고 하며 당사자와의 관계를 친척간 관계라 하고 그 사이의 가깝고 먼 관계를 따지는 것이 계촌법이니 가정생활과 예의 생활에 중요함이 되는 것이다.

- 핏줄이 같은 사이를 親族(친족)이라 한다.
- 姑母宅(고모댁)을 內戚(내척)이라고 하고 外家宅(외가댁)을 外戚(외척)이라 한다.
- 始祖(시조)가 같고 族譜(족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이를 一家(일가)라 한다.
- 시조는 같으나 족보를 함께 못하는 사이를 宗氏(종씨)라 한다.
- 시조가 같은 먼 일가를 宗親(종친)이라 한다.
- 高祖(고조)가 같은 八촌 이내의 자손을 堂內間(당내간) 또는 집안간 이라 한다.
* 분파한 한 일가간도 한 집안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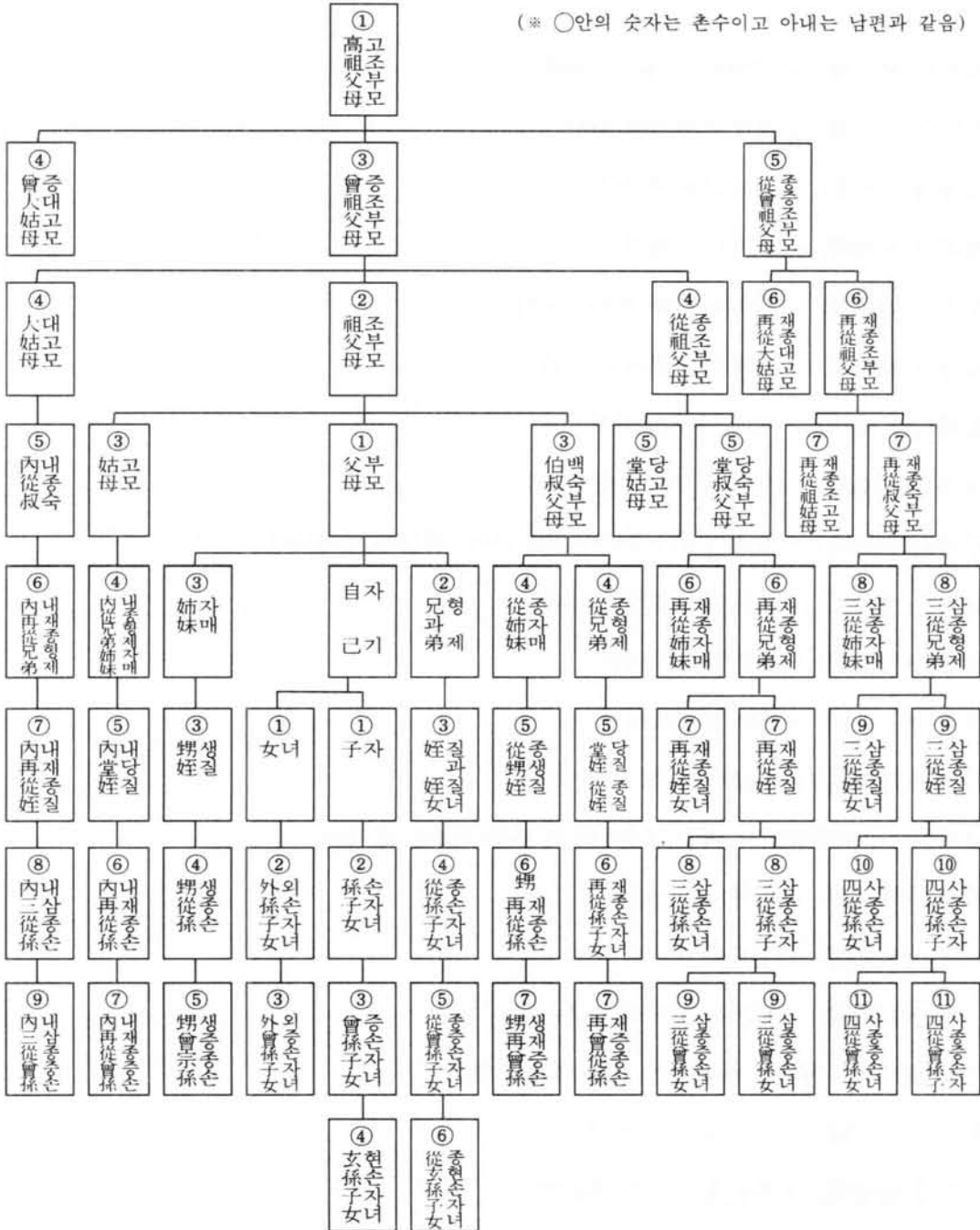
1. 촌수 계산 방법

- ㄱ. 직계 항렬에는 촌수를 따지지 않고 형제, 숙질, 항렬에만 촌수를 따진다.
- ㄴ. 아버지와 아들을 1寸으로 하여 촌수를 계산한다.
- ㄷ. 1寸과 1촌끼리 형제간은 2寸이다.
- ㄹ. 부부는 촌수가 없는 무촌이다.
- ㅁ. 外家(외가)는 항렬에 外자를 붙여 外四寸, 外六寸 등으로 촌수를 정하고
 - 고모댁은 항렬에 內자를 붙여 내4촌 내6촌이라 하고
 - 이모댁은 항렬에 姨從(이종)을 붙여 이종4寸이라 한다.
- ㅂ. 너와 나사이의 같은 할아버지를 찾아 그 대수에 2를 곱하면 寸수가 계산된다.

(예) 너, 나, 고조면 즉 4대조이니	$4 \times 2 = 8$ ~ 즉 8寸간이다.
(예) 너 20대조요, 나 20대조면	$20 \times 2 = 40$ ~ 즉 40촌간이다.
(예) 너 17대조요, 나 16대조면	$17 \times 2 - 1 = 33$ ~ 즉 33촌간이다.

2. 系寸 및 關係表(계촌 및 관계표)

(※ ○안의 숫자는 촌수이고 아내는 남편과 같음)



* 高孫이라 하면 높은 손자가 되기 때문에 玄孫이라 하고 高祖以上은 五代祖, 六代祖로 칭하고 玄孫以下는 五代孫, 六代孫이라 칭한다.

3. 相互關係(상호관계)

- 부자간(父子間) - 아버지와 자식의 사이
부녀간(父女間) - 아버지와 딸의 사이
모자간(母子間) - 어머니와 자식의 사이
모녀간(母女間) - 어머니와 딸의 사이
조손간(祖孫間) -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이
숙질간(叔姪間) - 아저씨와 조카의 사이
형제간(兄弟間) - 형과 아우의 사이
자매간(姊妹間) - 누이와 누이동생 사이
남매간(男妹間) - 오라버니와 누이동생의 사이, 처남과 매부사이
당내간(堂內間) - 8촌 이내의 일가 사이
재종간(再從間) - 6촌 형제의 사이
삼종간(三從間) - 8촌 형제의 사이
사종간(四從間) - 10촌 형제의 사이
내외종간(內外從間) - 내종(고종4촌)과 외종(외4촌)의 사이
이종간(姨從間) - 이종4촌의 사이
친척간(親戚間) - 친족과 외척의 사이
인척간(姻戚間) - 외가와 처가의 혈족사이
동서(同壻) - 형제의 아내끼리, 자매의 남편끼리
옹고간(翁姑間) - 장인과 사위의 사이
사돈간(查頓間) - 혼인한 사이의 부모끼리
구생간(舅甥間) - 외삼촌과 생질의 사이

親戚間 呼稱(친척간 호칭)

가정 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자를 직접 부를때나 다른 사람을 지칭할때 붙이는 이름이 호칭이니, 친척, 외척, 내척, 시댁 등 그 분류가 다양하고 生時(생시)와 死時(사시)의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익히지 않으면 난처하고 결례됨이 많을 것이다.

○ 가정 언어에는 다음과 같이 호칭을 분류한다.

ㄱ. 부름말 ~ 곧 호칭이니 두 사람사이의 직접 부르는 말이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등 칭호

ㄴ. 걸림말 ~ 두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 숙질(叔姪), 男妹(남매), 兄弟(형제), 同孀(동서)간

ㄷ. 촌수말 ~ 두사람 사이의 핏줄의 마디를 나타내는 말.

3촌, 4촌, 5촌, 8촌 아저씨 등

이상 세가지 언어중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부름말만 사용함이 옳고 4촌, 5촌하는 걸림말과 촌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 고 모 ~ 걸림 말

사 촌 ~ 촌수 말

아주머니 ~ 부름 말

아저씨 ~ 부름 말

三寸아주머니 ~ 촌수 말

숙 질 ~ 걸림 말

1. 親族間 呼稱(친족간 호칭)

대 상	호 칭	자기를 호칭할 때	남에게 호칭할 때	남이 호칭할 때	나에게 호칭할 때	
부	생 시	아버지 아버님	소자, 불효자 불초자(서신)	가친, 엄친	춘부장, 대인	아비, 나
	사 후	현고(축문)	고자, 효자	선친, 선인, 선고	선대인, 선장	

대 상	호 칭	자기를 호칭할 때	남에게 호칭할 때	남이 호칭할 때	나에게 호칭할 때	
모	생 시	어머니 어머님	소자, 불효자 불초자(서신)	모친, 자당	자당, 대부인 휼당	어미
	사 후	현비(축)	애자(축) 효자(축)	선비, 선모친	선대부인	
조 부	생 시	할아버지 할아버님	불초손 소손	조부, 왕부	조부장, 왕대인	할아버, 나
	사 후	조고 현고조(축)	고손(축) 효손(축)	조고, 선조고	선왕대인	
조 모	생 시	할머니 할머님	불초손 소손	조모, 왕모	왕대부인	할미
	사 후	현조비(축)	애손 효손	선조비, 조비	선왕대부인	
백 부	생 시	큰아버지 큰아버님 백부님	조카, 종자, 유자	사백부	백부장, 완장	큰아비
	사 후	현백부		선백부	선백부장	
백 모	생 시	큰어머니 큰어머님	조카, 종자, 유자	사백부	존백모	큰어미
	사 후	백모님 현백모(축)		선백모	선백모부인	
숙 부	생 시	작은아버지 중부님, 숙부님	조카, 종자 유자	중부, 계부 사숙	중부장, 계부장 숙부장, 완장	작은아비
	사 후	현숙부		선중부, 선계부 선사숙	선완장, 선중부장, 선계부장	

대 상		호 칭	자기를 호칭할 때	남에게 호칭할 때	남이 호칭할 때	나에게 호칭할 때
숙 모	생 시	작은어머니 숙모님	조카, 종자 유자	사숙모	존숙모	작은어미
	사 후	숙비(축)		선숙모	선숙모부인	
남 편	생 시	부군, 서방님 당신, 여보	처, 소처	남편, 부군 주인	현군 현군자	부, 졸부
	사 후	현벽(축)	주부	망부	선영군자	
처	생 시	아내, 마누라 여보, 당신	부, 졸부 가부	내자, 집사 람	영부인 합부인	처, 졸처
	사 후	망실(축) 고실(축)	부	망처	고영부인 고합부인	
형	생 시	형님, 백형 중형	아우, 동생 사제	가형, 사백 사중	백씨 중씨	가형, 사형
	사 후	현형		선형, 선사백 선사중	선형씨장 선백씨장 선중씨장	
형 수	생 시	형수씨 아주머니	생, 시제	형수	영형수씨	형수 아주미
제	"	동생, 아우 이름	형, 사형	사제, 가제	영제씨	동생 아우
제 수	"	제수씨, 수씨	생	제수, 계수	영제수씨 영계수씨	제수
자 (姉)	"	누나 누님	아우 동생	누님, 자씨	영자씨	누나
매	"	동생, 누이 이름	오빠 오라비	누이동생	영매씨	동생, 누이
자 (子)	"	애, 큰애, 작은애, 이름	아버, 어미 나, 우리	우리애, 아들놈 가아, 돈아	영식, 영운 아드님, 자제	소자 불초자

대 상		호 칭	자기를 호칭할 때	남에게 호칭할 때	남이 호칭할 때	나에게 호칭할 때
여 (女)	생 시	애, 여아 이름	아버, 어미 나	우리애, 딸년 여식	따님, 영애	여식 불초녀
질	"	조카	아저씨	가질	함씨, 조카님	
증조부	"	할아버님 증조부님	증손	증조부	귀증조부님	할아버
증조모	"	할머니 증조모님	증손	증조모	귀증조모님	할미
종숙부	"	종숙, 당숙 아저씨	종질, 당질	폐종숙	종숙장, 당숙장	종숙
종숙모	"	종숙모 당숙모	종질, 당질	종숙모 당숙모	존당숙모부인	
종형	"	형님 종형	아우, 종제	폐종형 4촌형	영종형씨	종형
재종형	"	형님 재종형님	아우, 재종제	폐재종형	영재종씨	형, 재종형
재종제	"	아우, 이름 재종제	형, 재종형	폐재종제	영제종제씨	아우 재종제
족조 (族祖)	"	족대부 대부	족손	폐족대부	귀족대부	
족숙 (族淑)	"	족숙주	족질	폐족숙	귀족숙부	10촌이상
족형 (族兄)	"	족형	족제	폐족형	귀족형주	
족제 (族弟)	"	족제	족형	폐족제	귀족제씨	

2. 外家宅 呼稱(외가댁 호칭)

대 상		호 칭	자기를 호칭할 때	남에게 호칭할 때	남이 호칭할 때	나에게 호칭할 때
외조부	생 시	외할아버지 외조부님	외손	외조부 외왕부	외왕존장 외왕대인	
외조모	"	외할머니 외조모님	외손	외조모	외왕대부인	
외 숙	"	외숙님 내구주	생질	폐외숙	귀외숙	
외숙모	"	외숙모님	생질	폐외숙모	귀외숙모	
외종형	"	외종형	내종제	폐외종형	귀외종형	
외종제	"	외종제	내종형	폐외종제	귀외종제	

3. 姑母宅 呼稱(고모댁 호칭)

대 상		호 칭	자기를 호칭할 때	남에게 호칭할 때	남이 호칭할 때	나에게 호칭할 때
고 숙	생 시	고모부님	인질, 부질	폐고모부	귀고모부장	
고 모	"	고모님	가질	폐고모	귀고모	
내종형	"	내종형	외종제	폐내종형	귀내종형	
내종제	"	내종제	외종형	폐내종제	귀내종제	
재 당 고 모	"	재당고모	재종질	폐재당고모	영재당고모	
대고모	"	대고모님	종손	폐대고모	영대고모부인	

4. 妻家宅 呼稱(처가집 호칭)

대 상		호 칭	자기를 호칭할 때	남에게 호칭할 때	남이 호칭할 때	나에게 호칭할 때
장 인	생 시	장인 장인어른 외구주	사위, 외생	폐빙장	존빙장	비이수, 용
장 모	"	장모님 외고주, 악모	사위, 외생	폐빙모	존빙모 부인	빙고
서 (婿)	"	서방, 사위	빙부, 응	사위, 여서	애서, 서랑 옥운	생, 소생, 불초생
처백부	"	처백부	시생	처백부	영처백부	
처백모	"	처백모	시생	처백모	영처백모	
처 남	"	처남	인제	처남	영처남	
처남댁	"	처수, 처남댁	생	처수, 처남댁	영처수	
처 질	"	처조카	고모부	처질	영처질	
자 형	"	자형	부제	매형	영자형	
매 부	"	매제	부제	매부	영매제	

5. 姨母宅 呼稱(이모댁 호칭)

대 상		호 칭	자기를 호칭할 때	남에게 호칭할 때	남이 호칭할 때	나에게 호칭할 때
이 숙	생 시	이모부	이질	폐이숙	귀이숙장	
이 모	"	이모님	이질	폐이모	귀이모	
이 종	"	이종형·제	이종형·제	이종사촌	귀이종	
이종질	"	이질	이모·부	이모·부	영이질	

6. 媿家宅呼稱(시가댁 호칭)

대 상	자기가 부를 때	남에게 말할 때	시부모에게 말할 때
시 부 (媿 父)	아버님	시아버님, 시부님	
시 모 (媿 母)	어머님	시어머님, 시모님	
남 편 (男 便)	여보, 당신	바깥양반, 주인양반	아비(자식을 낳은 뒤) 저·게
시백부 (媿伯父)	큰아버님	큰아버님, 시백부님	큰아버님
시백모 (媿伯母)	큰어머님	큰어머님, 시백모님	큰어머님
시숙부 (媿叔父)	작은 아버님	작은 아버님 시숙부님	작은 아버님
시숙모 (媿伯母)	작은 어머님	작은 어머님, 시숙모님	작은 어머님
남편의 형	아주버님	큰시숙님	아주버님, 큰시숙
남편의 동생(기혼)	아주버니, 서방님	서방님, 작은시숙님	아주버니, 작은시숙
남편의 동생(미혼)	도련님	도련님	도련님
남편의 형의 처	형님	큰동서, 맏동서	큰동서
남편의 동생의 처	동서, 아우님	작은동서	작은동서
남편의 누님	대고님	큰시누님, 형님	큰시누님
남편의 여동생	아가씨, 작은아씨 서방댁(기혼)	작은시누님	작은시누님 작은아씨
시 조 부	할아버님	시할아버님 시조부님	할아버님
시 조 모	할머님	시할아버님, 시조모님	할머님

- 시댁(媿宅) 어른의 호칭은 대개 남편이 부를 때의 호칭에 '-님'을 붙이면 된다.
- 시댁의 가족은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의 위계(位階)에 따라 말한다.
(순위 동서가 연하라도 형님이라고 공대한다.)
- 시댁어른께 친정부모를 말할 때 { 친정아버지 - 아버지, 바깥어른
친정어머니 - 어머니, 안어른
- 시댁사람에게 친정을 말할 때 - 친정이라고 한다.
(저희집, 우리집, 엄마네집은 망발)
- 남편을 시부모님께 호칭은 "저"라고 하며 아기를 낳으면 ○○아비라 칭한다.
(예) 저 어데 갔어요, 저 오늘 늦는다고 합니다.
※ "저" 대신 "계"라고 칭하기도 한다.
- 시동생은 도련님, 되련님이라 칭호한다. 결혼하면 서방님이라 칭호한다.
- 시누이는 어릴때는 아가씨, 다음은 아가씨, 장성하면 작은 아씨라 칭호한다.
- 부모가 딸을 부를 때 미혼이면 이름을 출가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 ○실(室) ○집이라 칭한다.

7. 常用呼稱(상용호칭)

호 칭	연	유
사 돈	바깥사돈(아들과 며느리의 양가아버지의 호칭)	
사 부 인	안사돈(아들과 며느리의 양가어머니의 호칭)	
사 장	사돈의 아버지, 또한 안사돈이 바깥사돈에 대한 호칭	
노 사 장	사돈의 아버지 또한 할아버지	
노사부인	안사돈의 시어머니 또는 시할머니	
사돈도령	안사돈이 사돈의 未婚아들에 대한 호칭	
사돈색시	사돈의 未婚 딸, 사돈새아씨의 약칭	
선 생	恩師 또는 덕이 높은 어른에 대한 존칭	
사 모 님	恩師의 부인, 나이 많고 덕이 높은 어른의 부인에도 쓰이고 있으나 함부로 쓰는 것은 不可함.	
어르신네	존장, 아버지의 친구	
군 (君)	수하나 아들연배에 사용	
양 (孃)	未婚女の 호칭	
여 사	기혼녀에 대한 존칭	
씨 (氏)	핏줄이 계산되지 않는 타인의 존칭	
님 (任)	핏줄이 계산되지 않는 타인의 존칭, 친족간에는 님과 시를 사용치 않는다.	

8. 自己呼稱(자기호칭)

相상	對대	呼호	稱칭	相상	對대	呼호	稱칭
父부	母모	小子, 不肖	子자		姉자	동생	家가 弟제
祖조	父부 母모	小孫, 不肖	孫손		妹매	家오	라 兄비
叔숙	父부 母모	舍子, 猶유	子자	姑고	從從 兄형 弟제	內內 從從 兄형 弟제	內內 從從 兄형 弟제
	夫부	拙妻, 妻처	妻처	妻처	男남	姻인	弟제
	婦부	拙夫, 家가	夫부	妹매	夫부	婦부	弟제
妻처	父부 母모	外甥, 甥생	壻서	外외 祖조 父부 母모	外외	外외	孫손
從從 宗宗	祖조	從從 宗宗	孫손	外외	叔숙	甥생	姪질
	兄형	舍弟, 家가	弟제	十寸以上 兄형 弟제	族족 弟제	族족 兄형	族족 兄형
	弟제	舍兄, 家가	兄형	先先 生生	門門 下下 生生	門門 生生	門門 生生
堂당	叔숙	堂姪, 從從 姪질	姪질	尊尊 長장	侍侍 下下 生生	侍侍 生生	侍侍 生生
從從 宗宗	兄형 弟제	從從 弟제 從從 兄형	從從 兄형	平平 交交 友友 (친구)	損損 第第 孫孫 弟제	拙拙 第第 孫孫 弟제	拙拙 第第 孫孫 弟제
再再 從從 宗宗	兄형 弟제	再再 從從 弟제 再再 從從 兄형	再再 從從 兄형	姨姨 從從 兄형 弟제	姨姨 從從 兄형 弟제	姨姨 從從 兄형 弟제	姨姨 從從 兄형 弟제
姉자	妹매	家弟, 家兄	家兄 弟제 家兄 弟제	八寸 兄형 弟제	三從 兄형 弟제	三從 兄형 弟제	三從 兄형 弟제
	嫂수	媳弟, 媳兄	媳兄 弟제 媳兄 弟제	十寸 兄형 弟제	四從 兄형 弟제	四從 兄형 弟제	四從 兄형 弟제
	子자		父아비				

* 편지 연하장등 서간용어로 많이 사용된다.

9. 잘못된 호칭

ㄱ. 망령된 말

- 장 인 ~ 아버지, 아버님
- 장 모 ~ 어머니, 어머님
- 처 남 ~ 형님, 동생
- 시 동 생 ~ 삼촌, 아제
- 시 누 이 ~ 고모
- 시아버지 ~ 할아버지
- 시어머니 ~ 할머니
- 남 편 ~ 아빠

ㄴ. 菽麥(숙맥) 말

- 고 모 부 ~ 고모아버지
- 질 부 ~ 조카며느리(조카의 며느리와 혼동)
- 손 부 ~ 손자며느리(손자의 며느리와 혼동)
- 손 자 ~ 손주(하인말)

내 고장 곡성 제3호

발행일 : 1996년 11월 20일

인쇄일 : 1996년 11월 30일

발행처 : 곡 성 문 화 원

발행인 : 김 길 영

인쇄처 : 청 진 문 화 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0-1

☎ (062) 223-4346

<非賣品>